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존 웨슬리

세계는 그의 교구

(John Wesley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김수경

2018년 2월

존 웨슬리

세계는 그의 교구
(John Wesley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재 원

김 수 경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김수경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7년 12월

John Wesley
The World His Parish

Suky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감사의 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17세기 인물로서 종교개혁에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존 웨슬리의 업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감리교 일반성도들도 메소디스트(Methodist)가 ‘규칙쟁이’를 의미하는 것과 그가 ‘자유의지’, ‘성화의 단계’를 강조했다는 정도만 예배시간 설교로 가끔 전해 듣는다. 일부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많은 서적을 남긴 웨슬리의 업적과는 달리, 우리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한국어 번역서가 많지 않은 이유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과거에 웨슬리에 관한 번역서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현재 일부 책들이 번역되고 있으나 페이지수가 많고, 전문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성도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존 웨슬리의 생애를 담은 책을 번역하고 싶었다. 특히 교회학교 청소년들에게 존 웨슬리의 믿음과 선구적인 신앙생활을 신학전공이 아닌, 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또한 책 속의 ‘미대륙 식민지 (American Colony)’, ‘보스톤 차 사건 (Boston Tea Party)’과 같은 17세기 역사적 사건들은 학생들에게 학습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웨슬리 사역에 사실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나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존 웨슬리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애플워스의 화재사건, 수잔나 웨슬리의 철저한 교육방식, ‘홀리클럽’, 미대륙 선교 등 존의 특별한 삶속에서 그가 유일한 존재(Only one)임을 확인하기보다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전심과 목숨을 다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겸손한 한 인간(One person)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책에 수록된 존 웨슬리의 일기와 찰스 웨슬리의 시(詩)는 김재원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작가는 왜 그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에 초점을 두어 번역하였고, 되도록 원문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배경적 맥락이 필요했던 선언문과 서신들은 수업시간 박경란 교수님과 김원보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전에 배경조사를 함으로서 오역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평소 의아해 했던 ‘규칙쟁이’에 대한 해석에 주안을 두어 내용을 살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명칭이 규칙적인 행동 때문에 얻은 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예정설(Predetermination)이 우세했던 17세기 영국 사람들은 신의 영역인 ‘하나님의 구원’외에 ‘인간의 거룩한 삶과 방법’을 강조했던 메소디스트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 맥락에서 ‘방법’을 뜻하는 ‘메소드

(method)’에서 파생된 ‘메소디스트(Methodist)’ 이름을 지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메소디스트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무리’이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위한 인간의 방법과 순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본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존 웨슬리의 설교를 번역하여 그가 가진 생각과 신앙을 나도 배우고,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번역논문을 마치면서, 나는 대학원에서의 긴 여정이 끝나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은 분명 어른이 되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린 시절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서툴렀던 시절, 대학원에서의 지식과 경험은 나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조금은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지금도 가끔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대면할 때면, 김재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은... 달걀!’을 떠올리며 피식 웃어넘기곤 한다. 교수님의 말씀은 번역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사실 과거에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믿음의 교수님들을 만나 삶에 힘을 얻으며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교회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박경란 교수님의 명쾌한 말씀들은 마음속에 사이다와 같았고, ‘기도할게.’, ‘그래, 나도 사랑한다.’는 문구의 메시지는 항상 큰 힘이 되었다. 첫째를 낳고, 복학해서 조금은 낯선 후배 기수들과 공부를 할 때에, 못하는 실력에도 다그치시기보다 마음이 다칠까 염려해주셨던 김원보 교수님의 마음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한, 또 앞으로도 함께 할 동기, 선배님, 후배님께 매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나의 평생 멘토이자,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시는 부모님, 존경하는 김정자 여사님과 김수택 아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두 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내 삶의 큰 비밀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언제나 든든한 돈키호테 오빠와 착한 우리 언니, 남편이라 쓰고 내편이라 읽는 평생 친구이자 주 안에서 동역자 된 내 삶의 축복, 사랑하는 이경훈 형제님과 부족한 엄마의 모습에도 항상 천사 미소를 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귀여운 나의 동역자 이재환, 이재호 형제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Thanks to God for everything!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73:28)

Abstract

This thesis is a translation of the book, John Wesley by Janet & Geoff Benge.

John Wesley, best remembered as the Father of the Methodist movement, was born in England into a strong Anglican home: his father, Samuel, was a priest, and his mother, Susanna, taught religion and morals faithfully to her 19 children.

On 9 February 1709, the roof of their home caught fire while they were all sleeping. The memory of the fire remained with him forever. In later years, he often quoted the famous text from Bible, 'A Brand Plucked out of the Fire (*Zechariah* 3:1-2)', to describe the incident.

While educated at Christ Church, Oxford, Wesley joined a society 'Holy Club', founded by his brother Charles Wesley, whose members took vows to lead holy lives. Later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to become the minister of the newly formed Savannah parish; but the venture was highly unsuccessful and he returned home beaten and depressed.

When John Wesley had a personal spiritual crisis, Moravians who met on sail to Georgia did have a profound impact on him. Back in London, he worshiped with Moravians in the Fetter Lane Chapel and began to see the light when by chance he discovered the Lutheran doctrine of salvation by faith alone.

Eventually, he started the Methodist Movement, which became a huge establishment within his lifetime. He taught that religion was meant for everyone regardless of social class and wealth and his teaching methods shadowed the same disciplined approach he applied to his own spiritual life.

He had ridden a quarter of a million miles on horseback, stopping along the way to preach over forty thousand sermons. Later in 1790 the number of Methodist in England was 71,463, in the United States, 43,260,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Scotland, the Caribbean, and Canada, 5,350.

He strove not to create a new religion, but rather a new way of being a Anglican, the church of which he was an ordained minister. Focused on God's love and holy living, the movement Wesley founded quickly multiplied in vibrant Methodist societies all over England and influenced other nations for Christ.

'The world is my parish. – John Wesley'

존 웨슬리

세계는 그의 교구

자넷 벤지, 제프 벤지 지음

김수경 번역

독자를 위한 글

이 책 「존 웨슬리」의 서술 형식은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에 있는 다른 책들의 관점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기물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쓰이며, 독자에게 한 사람의 관점으로 편중된 역사의 일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저자는 웨슬리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다른 중요한 인물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행동 등을 아우르며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집필하였다.

18세기는 유럽과 아메리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당시 웨슬리가 참여했던 복음운동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역도 아니었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찰스, 그리고 조지 화이트필드와 함께 메소디즘(Methodism)을 만들었고, 그 운동은 잉글랜드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아메리카까지 확장되었다. 이 책은 폭넓은 관점으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을 서술하고, 웨슬리의 관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독자들이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의 나머지 책들처럼 「존 웨슬리」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

-예수전도단 출판사

영국제도



목 차

1. 죽었다고 단념하다	5
2. 엄격한 규율	6
3. 가족 개혁	11
4. 성실한 학생	17
5.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	24
6. 새로운 도전	31
7. 조지아	40
8. 탈출	47
9. 믿음으로 살리라	54
10. 세계는 나의 교구	61
11. 확장 사역	68
12. 규칙을 정비하다	76
13. 동역자	83
14. 어긋난 관계	88
15. 지치지 않는 일꾼	95
16.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102
참고문헌	110

1장. 죽었다고 단념하다

초가지붕위에 불꽃이 일면서 존 웨슬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그가 다섯 살 때였다. 그 전 까지 그와 6명의 자매, 그리고 2명의 형제는 온전하게 신앙 안에서 자랐다. 존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런던으로부터 약 20마일 떨어진 엠피워스(Epworth)의 외딴 곳에 있는 성공회교회 교구사제였다. (다른 말로 성직자 또는 신부였다.) 엠피워스(Epworth)는 더펜스(The Fens)지역의 마을로 지대가 낮고 습지가 많아 자주 침수되는 곳이었고 도로도 거의 없었다.

웨슬리 가족은 엠피워스에 있는 작은 교회로 옮긴 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사무엘 웨슬리의 엄격한 방식을 싫어하는 성도들은 적대적이었고, 그로인해 사무엘은 잠시 감옥에서 지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존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 몇 명은 태어나면서, 또는 유아기에 사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수잔나는 매번 임신할 때마다 신체적 어려움을 겪었고, 잦은 출산은 그녀의 생활을 더 힘들게 했다.

이 모든 곤경을 겪으면서도, 항상 수잔나는 자녀들을 혹한 현실에서 보호하고자 노력하며 그들을 돌보고 가르쳤다. 그녀의 교육방법은 성공적이었고, 덕분에 큰 아들 사무엘은 웨스트민스터 학교에서 옥스퍼드 대학 입학시험에 일등을 하기도 했다. 사무엘이 엠피워스에서 런던으로 떠날 때, 어린 존은 자신도 형의 길을 따라 몇 년 뒤에는 대학진학으로 런던에 갈 것 이라고 생각했다.

1709년 2월 9일 웨슬리 가족의 생활은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존과 일곱 형제들은 다음 날 학교에 갈 것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당시 존은 다락에 있는 침실을 유모와 몇 명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썼다. 한밤중에 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고, 잠자리 주변이 불에 타오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타는 냄새와 비명소리를 듣기 전까지 주변의 불빛을 평소와는 다른 햇빛 정도로 생각하였다. 존은 자신의 침대를 두르고 있는 커튼을 뒤로 젖혔고, 방안에 비어있는 침대와 문가에서 푹푹 떨어지는 불덩이를 보았다. 불에 타는 집에 혼자 남은 어린 존은 문을 통해서도, 계단을 통해서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주변을 둘러

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었다. 그건 바로 창문!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존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서랍장을 창가로 가져가 그 위에 올라섰다. 2층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마당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옷을 반쯤 입은 채로 마당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다. 존은 뒤돌아 연기로 가득 찬 다락과 주황색의 불길이 점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밖으로 나온 가족들은 존의 생사를 포기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2장. 엄격한 규율

존의 부모인 사무엘 웨슬리(Samuel Wesley)와 수잔나 앤슬리(Susanna Annesley)는 1682년 사무엘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1688년에 결혼하였다. 같은 해 같은 달에 윌리엄 3세와 메리 여왕이 영국 왕위에 올랐다. 결혼 후 사무엘은 런던 올더스게이트의 성 보톨프 교회(St. Borolph Church)에서 부제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었다. 그는 짧은 종교서적과 시를 써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였고, 그 책들은 처남이 출판해 주었다. 그의 작품들은 모두가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 (The Grunting of a Hog)」, 「브랜의 상자 속 순한 뱀 (The Tame Snake in the Box of Bran)」, 「커젤스에서 뜯어진 모자 (A Hat Broke at Cugels)」와 같이 이상한 제목들이었다. 성 보톨프 교회에서 시무한 뒤, 사무엘은 뉴윙톤 부츠(Newington Butts), 썬레이(Surrey)와 옴스비(Ormsby)남부지역에서 잠시 사제직을 맡았다.

1695년 영국의 상류층 귀족인 노먼비 후작은(the Marquess of Normanby) 사무엘에게 앵워스 지역의 성 앤드류 교회(St. Andrew)의 교구사제로 평생직을 부여하였다. 그 직책으로 사무엘 웨슬리는 연 130파운드의 적당한 급여를 받았고, 교회경작지도 사용할 수 있었다. 사무엘은 새로운 직책과 함께 종교서적 집필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무엘이 교구사제직을 받아들인 이유는 빠르게 불어나는 가족 때문이기도 했다. 결

혼 7년 동안, 스물다섯 형제 중에 막내로 자란 수잔나는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중 세 명은 위험한 유아질병에 걸렸었다. 그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아이가 아들 사무엘이었고, 나머지는 두 딸인 에밀리아(Emilia)와 수잔나(Susanna)였다. 사무엘의 부인인 수잔나는 그때 당시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엠피스에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을 출산했다. 가족들은 그 아기를 메리(Mary)로 이름 지었다.

사무엘은 엠피스 교구사제직으로 적정한 급여를 받았지만 그의 부족한 경제관념 때문에 가족들은 조금도 넉넉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잔나가 일 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으면서, 그리고 임신 기간에 몸이 아프면서 더욱 악화됐다. 평소 이런 상황 때문에 사무엘 웨슬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생활을 도와 줄 요리사와 가정부, 유모를 고용했고, 그럴수록 재정적부담은 더욱 커져갔다.

엠피스에서의 생활은 그동안 런던에서 살아오던 삶과 충격적일 정도로 달랐다. 사무엘과 수잔나 모두 영국역사의 동란시대를 지내온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 수잔나의 아버지인 존 앤슬리(John Annesley)는 영국 국교회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반대파였으며, 영국 국교회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교단인 '국정 교회¹⁾(Established Church)'를 형성했다. 사무엘과 존은 찰스 왕 1세를 타도하고 영연방협회를 세운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지지자였으며, 이들은 영연방협회에서 목사로 일을 했다. 그러나 1660년 군주들이 권력을 되찾고, 찰스 왕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 두 사람은 교회목사직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사무엘과 수잔나는 그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영국 국교회로 돌아갔다.

활기차고 교양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런던 중심가에 살았던 수잔나에게 엠피스의 삶은 정서적 충격이었다. 여성 4명 중 1명만이 이름을 쓸 줄 알았던 그 당시에 그녀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글을 읽고 썼다. 수잔나는 하나님의 본질과 종교적 믿음을 다루는 학문인 신학과 성경말씀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철학자 존 로체(John Locke)의 관점을 가장 좋아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낙후되고 촌스러운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 자녀들이 지역아동들의 거친 행동을 따라할 것을 우려해 함께

1) [영] 국정 교회(國定教會), 국교 제도(영국 교회와 같이). Disestablishment와 대조. 한 국가법으로 설립되고 인정되고 그리고 지원을 받는 국교를 말한다. 국교 제도의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는 관용으로(tolerated) 인정될 뿐이다.

어울려 노는 것을 금했다.

지역의 성인남성들과 소년들은 엠피스 주변에 있는 습지 또는 소택지를 경작해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들은 작은 습지에서 개구리, 거북이, 물고기 그리고 장어를 잡아먹거나 내다팔았다. 불행하게도 지역주민의 이러한 생활양식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다. 아이들(Idle), 토르(Torr), 트렌트(Trent), 오스(Ouse)와 돈(Don) 이렇게 5개의 강으로 둘러싸인 악스홀 섬(the Isle of Axholme)에 위치한 이 마을은 습지가 곳곳에 복잡하게 있어 말 또는 소형 배를 타거나, 걷는 것 외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웠다.

80년 전 어느 한 네덜란드 공학자가 이 습지를 비옥한 토질의 생산적인 목초지로 만들기 위해 일부 지역의 물을 빼버렸다. 그러나 소택지에서 생계를 꾸리는 자들은 양을 치거나 낙농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했다. 그러나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땅들은 경작지로 변했고, 이러한 일들은 지역주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다. 웨슬리 가족이 이곳에 도착하고 오래된 목조 사택에서 지낼 때에도 지역주민들은 동일한 시선으로 웨슬리 가족을 지켜보았다.

사실 상 사무엘 이전에 부임된 사제는 주민들로 부터 작게나마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민의 도움은 거의 없었다. 사무엘은 불같은 성격의 설교자이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전문가였으며, 교회규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구내의 죄 있는 자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죄를 시인하고 맨발로 교회의 돌바닥에서서 공개적으로 몇 시간 동안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교로 불쾌해진 주민들은 웨슬리의 경작지를 망가뜨려 농작물을 해치거나 웨슬리집의 개를 죽이려고도 했다.

웨슬리 부부는 이러한 어렵고 낮은 삶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고, 아내 수잔나는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했고 말씀의 일부를 암기하거나 가꿈은 말씀 한 권 전체를 암기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자녀가 5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알파벳을 가르치고 다음날부터 책을 읽히기 시작했다. 성경이 아이들의 유일한 교과서였기 때문에 웨슬리가의 아이들이 글을 읽기 위해 처음으로 배운 단어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시니라)”에서의 ‘in’이었다. 자녀교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로 유일한 휴일은 주일 뿐 이었고, 수업시간은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큰 아들 사무엘이 12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육방식이 더 엄격해지고 있던 1703년 6월 17일, 존 벤자민 웨슬리(John Benjamin Wesley)가 태어났다. 웨슬리가족이 애플스 사제관으로 이사 오고 나서 8년 동안 수잔나 웨슬리는 메리를 비롯해 많은 아이를 낳았고, 영아기 때 죽을 고비를 넘긴 헤티(Hetty)라고 부르던 메히터벨(Mehetabel)과 앤(Anne)도 낳았다. 수잔나의 15번째 아이인 존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는 한 명의 형과 다섯 명의 누나가 있었다. 존 웨슬리의 이름은 할아버지인 존 앤슬리(Dr. John Annesley)박사의 이름과 삼촌인 벤자민 앤슬리(Benjamin Annesley)이름에서 따서 지었다. 그의 부모는 이전에 사망한 존 벤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두 형보다 존 웨슬리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 주길 바랐다. 존의 출생은 절차에 따라 가족 성경에 쓰였고, 그의 삶은 사제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 존의 아버지는 심각한 빚을 지고 있었으며, 주변에서 가장 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그 해 일 년 전, 존의 아버지는 지역구 선거에서 인기 있는 후보자의 반대편 입장에 섰고, 그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교회 성도 중 한 명은 꺾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사무엘은 그 빚을 갚을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링컨 채무자 감옥(Lincoln Debtors' Prison)에 수감되었다.

수잔나는 남편이 감옥에 수감 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대주교(archbishop)가 와서 웨슬리가정을 원조해주길 기다렸다. 이후 대주교는 웨슬리가정을 도와주었고, 석 달 후 사무엘은 풀려나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존이 태어난 이후,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 묶여있는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또 다른 남자아이가 1706년에 태어났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모 옆에서 자다가 질식사하여 사망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이가 더 태어났는데, 존 보다 약 3살 어린 마르타(Martha)와 4살 반 어린 찰스(Charles)였다. 존의 형인 사무엘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학교로 공부를 하기위해 떠날 무렵, 북적이는 웨슬리 가정은 행복했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1709년 어느 추운 겨울밤, 불이 타오르는 나무가 12살 헤티의 침대 발치에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졸티드(Jolted)는 깨어 있었고, 헤티는 불에 타고 있는 지붕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 내려와 안방에 있는 아버지 사무엘을 깨웠고, 사무엘은 차례로 나머지 가족들을 깨웠다. 모두가 가까스로 침대 밖을 기어 나와 함께 계단 밑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가족은 계단 맨 밑 칸에서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다. 왜냐하면 잠겨있는 문의 열쇠가 위층 침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은 눈을 찌르는 것 같이 따가운 연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불에 타는 계단에 뛰어 올라갔고, 열쇠를 짊어와 방을 뛰쳐나왔다. 화염속의 계단은 그가 걸어오는 뒤를 쫓아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문을 열었고 가족들은 앞마당으로 뿔뿔이 흩어져 뛰어나갔다.

그러나 그 때 문밖으로 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존이었다. 다락방 침실에서 곤히 자고 있었던 그는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전혀 알지 못했다. 존이 다른 이들과 방을 함께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침대는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그 때까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방을 같이 쓰던 유모와 다른 형제들도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서둘러 나왔기 때문이었다. 존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밖에 있는 가족들은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무릎을 꿇어 존의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를 했다.

다행히 이 상황에 대해 모두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존에게 벌어진 이 엄청난 상황을 구경 나온 이웃 중 한 명이 창문을 향해 소리쳤다. 웨슬리가족은 위를 올려보았고 존을 목격하였다. 모두가 극도로 흥분하여 그를 구하기에 힘썼다. 근처에서 사다리를 구할 수 없었기에 몇 명의 성인남자들이 한 명씩 어깨위로 올라타 창문에 다다랐다. 가장 위에 선 남성이 창문을 한쪽으로 잡아당겨 열었고 존의 목덜미를 잡아 창문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 순간이 지나서야 존은 자신이 땅위에 있는 것을 알았고, 위에서 바라만 보았던 안전한 곳에 자신도 있음을 깨달았다.

존의 어머니 수잔나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고, 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 아들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이 아이야 말로 타고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²⁾입니다.”라고 외쳤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여덟 명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저는 부요합니다.”

웨슬리 가족은 불타버린 집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결

2) 스가랴 3:1-2

론을 내렸다. 불이 늦은 밤에 일어난 것과 지붕에서 불이 붙은 것은 일반적인 가정 집 화재경로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은 일부 기분이 상한 교회성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했다.

집은 새벽녘까지 검게 그을려 탔으며, 그로인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망가지고, 출판하기로 되어있던 읍기에 대한 논평 원고와 서재의 그리스어, 라틴어 책들, 귀중하게 여겼던 존 앤슬리 박사의 논문집, 가족들의 옷과 음식 그리고 아마를 추수해 벌어들인 돈까지 모두 불에 타버렸다.

불에서 살아났다는 안도감은 변해버린 상황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렸다. 교구사제인 가장과 8개월 임신한 아내, 한 살에서 많아도 열일곱 살 밖에 안 되는 8명의 어린 아이들, 이게 전부인 웨슬리 가정은 집도 없이 무일푼의 빈 털털이가 되고 말았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였기에 사무엘 웨슬리는 적어도 당분간은 가족모두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무엘과 수잔나는 자녀들을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원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 맡겼다. 두 딸, 수잔나와 헤티는 런던으로 떠나 삼촌 매튜 웨슬리(Matthew Wesley)와 지냈고 존과 다른 아이들은 지역 근처의 친척집에서 지냈다. 큰 딸인 에밀리아는 어머니의 출산을 도와야 했으므로, 사무엘, 수잔나, 에밀리아 그리고 어린 찰스는 가까운 이웃집에서 하숙을 했다.

24시간 내내 일어난 화재 때문에 웨슬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존은 가족들과 잠시 남아있었는데 그 다음 날 부터 어머니는 이야기 하는 것조차 금하기 시작했다. 느슨한 삶이란 자신의 가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존 웨슬리는 생각했다.

3장. 가족 개혁

처음에 존은 자신을 맡아준 가정에서 그 집안 아이들에게 허용하는 것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믿지 못할 일들이었다. 그 집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집의 안과 밖을 뛰어다니고, 마당에서 뒹굴며 놀며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을 먹었다. 그리고 형제라는 호칭 없이 이름을 부르며 지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갔다. 존은 저류지에서 개구리나 장어를 잡았고, 새로 사귄 친구들 집에서 밤낮없이 놀았다.

런던으로 간 수잔나와 헤티를 제외하고 존의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주일아침 교회에서였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웨슬리가정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엄격한 경계아래 맨 앞좌석에 앉아야만 했다. 존의 어머니도 예배를 드렸고, 형제 중 제일 막내인 아기 크지아(Kezziah)는 큰 딸 에밀리아와 함께 집에 있었다. 크지아는 읍의 딸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읍은 구약성경에서 온갖 종류의 끔찍한 시련을 다 겪은 인물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무엘과 수잔나 웨슬리는 이 이름이 그들이 겪은 모든 상황과 걸맞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사제관은 쉽게 불에 타지 않도록 벽돌로 지어지고 있었다. 매일 존은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는 가족 전체가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생각되었고, 이전에 집에서 지냈던 가족들과의 삶은 지금의 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마침내 일 년 후 새로운 사제관 건축은 완성되었고, 웨슬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사무엘과 수잔나, 막내 크지아, 두 살배기 찰스가 먼저 새 집으로 들어갔다. 사무엘과 수잔나는 펜스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자녀들을 먼저 불러 모았고 마침내 런던에서 지냈던 수잔과 헤티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무엘과 수잔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 할 생각들로 가득차 있었다.

수잔나 웨슬리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 받은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는 간이 철렁했다. 아이들은 마음대로 뛰어 돌아다니며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속한 노래를 부르며 우스꽝스러운 펜스 지역민들의 거칠고 투박한 말투로 말을 했다. 그동안 변해버린 아이들의 성격과 행동은 개선이 필요했고, 수잔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척도 하는 일련의 규칙을 작성하였다. 이 새로운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벌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릇된 행동을 줄줄이 따라할 나머지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의 규칙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에 대한 보상도 있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어른에게 걸리기 전에 자백한다면, 그 아이는 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

하게 보내지 않거나, 거짓말, 불순종, 말다툼과 같은 죄를 범하다 걸리면 벌로써 회초리를 맞았다. 게다가 누구든지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줄 것을 약속하면 영원히 그 물건은 약속받은 사람의 것이었고, 물건을 내 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규칙이 있었는데, 딸인 경우, 글을 잘 읽게 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변화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시편 노래를 배우고 하루에 4번씩 성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또한 수잔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짝을 지어 주었는데, 가장 큰 아이와 막내, 둘째와 거꾸로 두 번 짝으로 어린동생 이런 식으로 짝을 맺어주었다. 존과 헤티가 같은 짝이었고 헤티는 존에게 매일 학교가기 전에 신약과 시편 중에서 말씀 한 장을, 방과 후에는 구약과 나머지 시편 중에서 또 말씀 한 장을 읽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잔나는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예전처럼 돌리기에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자녀 한 명씩 데려다가 일주일 중 하룻밤, 한 시간 동안 영적성장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성경이나 신학에 관한 자녀의 어떤 질문에든 답변을 해주었다. 존의 개별집중시간은 목요일에 있었고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질문이 훨씬 많은 아이였다. 수잔나 웨슬리는 존이 사물을 바라보는 논리적 방식에 주목하였고, 일곱 살 아이의 질문과 고민에 대해 품위를 갖추고 존중의 태도로 답변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들과 수잔나의 의지는 가족이 다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화재가 있기 전처럼 자녀들에게 지역사회의 삶을 단절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다른 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자녀들은 각기 다른 삶에 노출되었고, 때로는 그 낯선 삶의 방식 때문에 고충을 겪기도 했다. 몇 년 후 수잔나가 아들 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웨슬리가족위에 떨어진 불꽃의 영향에 대해 글을 썼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었다. 그 보다 더 아이들이 순조롭게 자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가졌고, 부모에게 순종했다. 모두가 흩어져야 했던 치명적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화재 사건으로 아이들이 여러 가정으로 흩어지기 전까지 말이다.

가족이 다시 모여산지 2년이 지나, 사무엘 웨슬리는 런던에 장기간 방문을 했다. 그는 매우 큰 정기총회인 영국성공회 지도자대회에 교회지역대표로 선출되어 참여했다. 그가 런던에 있는 동안, 아내 수잔나 웨슬리는 엠피스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에 대해 사무엘은 전혀 몰랐다. 수잔나는 집회를 통해 여성 교회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심도 있게 시험해보고 싶었다.

웨슬리 교구사제가 런던으로 방문 중이던 1712년 새해 첫 날부터, 엠피스 교회의 약 25명의성도들은 어느 주일이든 교회에 출석하도록 추구를 받거나 설득을 당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200명에서 300명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모든 것은 수잔나의 노력이 일궈낸 결과였다.

화재 이후, 사무엘은 서재를 다시 채워 넣을 책들을 기부 받았는데, 모든 사건은 에밀리아가 그 책 중 하나를 읽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책은 지에젠바르그(Ziegenbalg)와 플러테슈(Pluteshau) 두 명의 덴마크 남자이야기를 다뤘다. 이 둘은 덴마크 왕으로부터 긴급한 선교요청을 받아 수행한 사람으로, 1706년 9월 인도의 동남쪽 해안가에 있는 타랑감바디(Tranquebar)에 도착하고 기독교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고, 타랑감바디에 도착한 지 약 10개월이 지났을 때 회심자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힌두교인과 지역에 있는 덴마크 관계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반대했으며, 1707년 8월에 지에젠바르그는 지역사람들을 개신교로 개종시켜 반란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에밀리아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매우 강한 호기심을 가졌고, 책속에 있는 강력한 설교집을 소리 내어 읽게 되면서 그녀의 어머니까지 내용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으며, 수잔나는 책의 본문을 자녀들의 오후 기도시간 후나 성경을 읽는 시간 후에 소리 내어 읽어주었다.

이 두 선교사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심지어 그 가정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관심을 끌었고, 사무엘 웨슬리가 런던에 있던 2주 동안에 하인들은 이 이야기를 엠피스지역과 펜스지역까지 퍼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사람들은 수잔나 웨슬리가 다음내용을 언제 읽을 것 인지, 또는 그들에게 읽어 줄 수 있는 지를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다.

평소 수잔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인맨(Inman)에게 훈계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인맨은 사무엘 웨슬리가 런던에 가있는 동

안 직무를 대신 하기 위해 대주교로부터 파견된 사제였다. 그는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배시간의 설교를 자신의 불만거리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로 빚지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맨은 웨슬리 가족에 대한 공격을 퍼 부었고, 가끔 교회로 오는 방문객에게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노여워하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진리와 상관없는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일은 매우 지겨운 일이었고, 설교의 주제는 수잔나 웨슬리가 격분하도록 만들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인 사무엘 웨슬리가 잠시 동안 채무자 감옥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이유로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잔나는 인맨의 설교가 가족의 상처 위에 소금을 문지르려는 의도였음을 확신했다.

수잔나는 인맨의 반복적이고 웅얼거리는 설교와 책속에 기록된 두 명의 덴마크 선교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비교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두 선교사의 삶처럼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주일 오후에 사제관을 열어 사람들과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장소는 부엌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2백 명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였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부엌에 가득 채워도 사람들이 복도까지 넘쳐 났으며 밖에 서있는 사람들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수잔나의 모임이 인맨이 인도하는 모임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수잔나의 승인 되지 않은 모임을 심각하게 받아드렸다. 그는 런던에 있는 사무엘 웨슬리에게 불만을 표하는 편지를 보내어 이 일에 대해 지적했다. 결국 수잔나 웨슬리는 법적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잔나의 모임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회중모임이었고, 국교회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모임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영국성공회 목사의 아내인 수잔나 웨슬리가 불법모임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사무엘은 그의 아내에게 그러한 모임을 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력한 편지를 보냈다. 특히 교회의 사제관에서 모임을 갖는 것과 여성이 모임을 인도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수잔나에게 남자를 사람들 앞에 세워 책을 읽게 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잔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동등한 지식과 영적평등을 이유로 들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가 쓴 답장

에는 모임이 특이 하게 보이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행해지는 모든 예식처럼, 강대상이 아닌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나 일상대화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패한 시대에는 최선을 영혼을 보살피는 것과 신실함만이 하나님에 대한 논쟁과 사회에 대한 영적 근심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대가족을 보살피는 여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성도들의 사제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재로 인하여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보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엠피스로 배달되었는데, 수잔나는 편지를 이용해 이 일에 대해서 남편과 논쟁하였다. 사무엘은 모임을 중단 할 것을 제안하는 반면 수잔나는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이 모임은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편으로 회유되었고, 그로인해 우리는 상상하던 가장 멋진 친교를 이루며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의 안 나오던 일부 가정들도 현재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7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도 지금은 다른 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잔나는 이런 말을 하며 편지의 끝을 맺었다.

그래도 당신이 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이상 나에게 이 일을 관두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양심은 이 모임을 그만 두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당신과 내가 예수그리스도의 위대한 법정 앞에서 두려워 할 때, 영혼에게 선을 행하는 이 기회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모든 죄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긍정적인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이후 천연두가 엠피스 마을에 퍼져 모임이 축소되긴 하였으나 사무엘은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모임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금하지 않았다. 당시 존과 그의 4명의누이

가 천연두로 시달렸지만 수잔나의 극진한 간호로 자녀 모두가 온전히 나왔다.

사무엘이 런던에서 돌아왔을 때, 교회예배를 위해서 그 모임은 해체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는 증가하였고, 웨슬리가족은 이웃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존 웨슬리, 어머니의 충실한 지지자였던 그는 사제관 부엌에서 피어난 공동체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글을 썼고, 그것은 그의 미래를 안내해 줄 사실적 경험이었다.

1714년 존 웨슬리가 11살이 되던 해, 그는 형 사무엘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 학교에 진학해야하는 시기를 맞았다. 런던으로 떠나는 첫 여정에서, 사무엘 웨슬리는 버킹엄 공작이 영국 수도에 있는 차터하우스 스쿨(Charterhouse School)에서 존을 후원해주도록 준비하였다.

그러나 존의 누이들은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였는데, 영국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당시 22세와 19세의 두 명의 큰 딸 에밀리아와 수잔나에게 결혼이나 가정교사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길 외에는 다른 전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11살의 존 웨슬리가 검정 편직물 교복을 입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바지와 새로운 부츠를 신을 때, 수잔나 웨슬리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직업을 찾기 위해 사제관을 떠나는 두 딸들에게 충분한 옷들을 공급했다. 어린 존은 자신 앞에 놓인 기회들을 누이들도 원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앵웁스로부터 5마일 이상 떠나본 적이 없었기에 런던으로 혼자 떠나는 여정이 흥분되면서도 무서웠다.

4장. 성실한 학생

존은 자신 앞에 놓인 작은 생각들을 하며 런던에 있는 차터하우스 스쿨에 도착했다. 그는 곧 학생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신입생은 아주 낮은 서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존이 많은 시간을 학교 선배를 위해 심부름을 하거나 신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데 써야하고, 식당에서 자신의 접시위의 음식을 선배에게 빼앗기는 것도 허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서열방식이 여러 영국기숙사학교에서 늘 해오던 것임을 깨달았고, 만약 그가 잘 견뎌내어 다음 학년이 되면 서열이 올라갈 것이고, 그도 신입학생에게 똑같이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존은 그가 떠나온 애플워스의 엄격하고도 경건한 생활을 매우 갈망했고, 집에 대한 향수병으로 고생을 했다.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적 지도 아래 있었는데, 런던으로 오고 나서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매우 그리워했다. 사제관이 불에 타 무너진 그 날 이후, 처음으로 존은 자신의 행동 동기를 확인하는 사람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 존은 자신이 정해놓은 높은 이상과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목록을 쓰기로 결정했다. 목록의 첫 번째는 다른 이들과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해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며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존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규칙들은 다른 학우들에게 그가 매우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였을지는 모르나, 웨슬리가족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최소한의 것들이었다.

존은 차터하우스 스쿨에서의 일학년 생활을 즐겁게 보냈다. 하루 종일 라틴어로 말하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야했지만 학교수업들은 특별히 그에게 어렵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애플워스로 가는 교통편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존은 주말과 방학을 형인 사무엘과 형수인 어술라(Ursula)와 함께 지내거나 또는 런던에 있는 친가와 외가 친척들과 자주 보냈다.

1715년 존의 동생인 찰스(Charles Wesley)가 런던생활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스쿨(Westminster School)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게 되었다. 웨슬리 세형제가 모인 특별한 날에 존은 항상 무언가를 하길 고대했다.

그 사이, 애플워스 사제관에서 살고 있는 나머지 가족들은 1716년 크리스마스가 오기 직전에 의문의 사건을 경험했다. 응접실을 담당하는 하녀 한 명이 사제관 벽 안에서 벽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매우 무서워했으며, 수잔나는 이웃을 찾아가 무슨 소리인지 물어보았다.

“아, 그거 분명 쥐 일거예요.”이웃여자는 수잔나에게 말했다.“저희 집에서도 벽안에 쥐들이 있어서 그런 소리가 났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트럼펫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부니까 쥐들이 다 달아났어요.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수잔나는 이웃의 트럼펫을 빌려다가 소리가 집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불었다. 그녀는 사제관에 있는 쥐들을 몰아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빌렸던 트럼펫을 돌려 주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접실 하녀는 계속해서 벽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투덜댔다.

그리고 얼마 후, 에밀리아가 사제관에서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음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 부엌에서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겁에 질린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수잔나는 상황을 살피러 나갔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깨진 것이 없었고, 밖으로 떨어진 물건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곧바로 집사 한 명이 한 밤 중에 계단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벽안에서, 천장에서 그리고 바닥 밑에서도 크게 났다고 했다. 집안사람들이 들은 소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기에 그들 모두는 사제관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결론지었다. 수잔나 마저도 결국 그 말에 설득 당했고, 다함께 그 유령을 이 마을에서 목숨을 잃은 남자, 유령 제프리 노인(The ghost Old Jeffrey)이라고 불렀다.

집안사람 모두가 사제관은 귀신에 홀린 집이라고 하는 반면, 사무엘 웨슬리는 그 말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설명할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직 사람들이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 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제관 벽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그도 들었을 때,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존은 사제관에서 생긴 이상한 일들을 누이 앤(Anne)의 편지로 알게 되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저 기이한 일들로 여겼으나, 계속 집에 있는 유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존 웨슬리는 사제관에서 일어난 일들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는 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그의 어머니는 답하기를 “나는 네가 우리 집의 반갑지 않은 이 손님에 대해 이토록 호기심을 가지다니...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 구나. 이에 대해 내 얘기를 하자면, 그것에 대해 듣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매우 지겨울 정도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곳에 와서 우리와 지낸다면, 알고 싶은 네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마도 그 유령을 네가 직접 듣거나 볼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웨슬리 세형제가 모일 때면, 편지로 전해들은 앵위스 사제관에서 일어난 유령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 처음에 존은 가족이 유령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받아드리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는 평소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령을 믿는다는 것은 게으른 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자들의 믿음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부모 모두가 유령을 실제의 존재로 믿고 있기에, 세 형제는 그 사건이 참으로 유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령 제프리 사건이 처음 대두된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목사관을 둘러썬던 이상한 일들이 그치고 다시 일상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그 소식으로 존은 안도하였고, 다시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존은 세상 안에 초자연적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한 그 사건을 절대 잊지 않았다.

차터하우스 스쿨을 다니는 동안 사제관 유령사건만큼 재미있는 일은 그에게 없었다.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끝낼 때, 존은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차터하우스 스쿨은 존에게 대학교 진학을 위한 장학금으로 20파운드를 지급했다. 그는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 at Oxford)대학에 지원을 했고, 대학교는 입학할 허가를 했다. 대학교의 학비가 차터하우스 스쿨에서 지급한 장학금 금액과 맞았기에 존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1720년6월 14일 존은 형의 뒤를 따라 옥스퍼드 대학 중 가장 명문인 크라이스트처치에 입학하였다. 그 날은 존이 17살이 된 지 3일된 날이었다. 그는 논리학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 레토릭(Rhetoric), 정치학, 윤리와 같은 흥미롭고 통과하기 쉬운 과목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레저 활동으로 시간표를 가득 채웠고, 보트타기, 체스, 카드게임, 댄싱, 영화보기, 테니스와 당구로 시간을 보냈다. 존은 이러한 활동들을 더욱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의 매일은 신앙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갔다. 이곳에서 새롭게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차터하우스 스쿨에서 자신을 위해 세웠던 단순한 기준들도 지키기가 어려웠다. 존은 일년에 두 번 있는 성찬식 외에는 자신의 영적상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성찬식에서 의무적으로 자신의 죄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존은 자신의 돈을 가까스로 관리하였지만, 가끔은 친구 또는 선생님에게 빚을 져야 하는 곤란한 일을 겪기도 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존도 그의 빛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엠피스 사제관 생활도 원활하지는 않았다. 특히 존의 누나들의 삶이 그러했다. 웨슬리가족 모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영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재정관리에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웨슬리가의 딸들은 좋은 옷을 사 입거나 사회적으로 준비된 좋은 신붓감이라는 것을 보여 줄만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에밀리아는 링컨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서 직업을 찾아 교사가 되었지만, 동생인 수잔나는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다. 런던에서 삼촌과 함께 지내는 동안, 수잔나는 리차드 엘리슨(Richard Ellison)이라는 농부를 만나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한 것이다. 사무엘과 수잔나 웨슬리가 리차드 엘리슨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둘은 리차드의 거친 행동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가 상스럽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매우 끔찍함을 느꼈다. 존의 어머니는 그를 “악으로 배도한 천사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했다. 존은 옥스포드에서 자신의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누나가 리차드 엘리슨과 같은 이와 결혼했다는 소식은 매우 그를 슬프게 했다.

1723년 여름의 어느 날, 존은 혼자 시골길을 산책했다. 그가 강가에서 쉬려고 걸음을 멈췄을 때, 그의 코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많이 걱정하지 않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코피가 멎지 않자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 지 염려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갑작스런 충격은 피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고, 존은 물에 젖은 채 오히려 집을 향해 갔다. 그는 터벅터벅 혼자 걸어가면서,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갖기로 결심하였다.

옥스포드 도서관에서 존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최근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한 책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케인 박사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책(*Dr. Cheyne's Book of Health and Long Life*)」 이었고, 존은 앞표지부터 뒤표지까지 모두 읽었다.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유행과 지사제 사용을 장려하는 많은 학문들과는 다르게, 케인박사의 접근방식은 좀 더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케인박사는 독자들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양의 음식과 음료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존은 케인박사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음식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돼지고기, 생선, 그리고 비육된 가축뿐만 아니라 짜거나 양념이 과한 음식도 포함됐다. 그는 하루에 2파인트(약 950ml)의 물을 마

시는 것과 8온스(약 227g)의 육류 그리고 12온스(약340g)의 채소 섭취를 권장했다. 케인박사는 운동을 많이 할 것을 권했는데, 존은 특히 ‘전신의 땀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승마운동과 모든 사람은 밤 8시까지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며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존은 책의 조언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724년 6월 17일 그의 21번째 생일 직 후, 존은 기쁘고도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그의 형 사무엘이 쓴 편지에 어머니가 인도에서 돌아오는 삼촌에게 방문하기 위하여 런던으로 오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태어났던 오래전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가 런던에 가신 적이 없었기에, 그는 고된 여정을 선택하신 어머니의 결정이 놀라웠다. 그리고 웨슬리 가족의 운명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이 존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었다. 사무엘 앤슬리(Samuel Annesley)삼촌은 인도에서 거액을 벌어들인 사람으로 동인도회사에서 유명한 무역가였다. 그는 여동생인 수잔나에게 서신을 보내어 영국으로 돌아가면 웨슬리가정의 빚을 갚아주고, 그 가정이 더 나은 재정적 발판위에 설 수 있도록 일천 파운드의 거액의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존의 어머니는 그 돈의 일부로 존의 빚을 갚아주어 가능하면 존이 석사학위도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장을 했다.

존은 옥스포드에서 런던으로 떠났고, 그와 사무엘, 찰스는 엠피스에서 역마차를 타고 도착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들은 어머니와 동행하여 선창에서 삼촌이 탄 배가 도착하길 기다렸다. 마침내 템즈 강을 향해하던 선박이 선창에 정박했다. 그러나 사무엘 앤슬리 삼촌은 그 배에 타있지 않았다. 배의선장은 왜 그가 인도를 떠날 때 그 배를 타지 않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탑승한 다른 이들도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도에 편지를 보내고 사무엘 삼촌의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사무엘 앤슬리와 그의 재산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가족들은 사무엘이 살해된 것으로 의심했으나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다. 존은 자신에게 약속된 돈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쓴 교훈을 배웠다.

수잔나 웨슬리가 엠피스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실망하지 말거라. 대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학업에 바짝 열중하여라. 그리고 더 나은 날을 위해 소망을 품어라.”

그의 빛이 갠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존은 지출을 줄여야만 했다. 그는 새로운 가발을 사야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기로 결정하였다. 아무리 남자가 긴 머리가발을 쓰고 다니는 이상한 패션이 당시에 유행이었어도 존처럼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사실 존은 머리를 기르는 일이 귀찮지 않았다. 사실상 그는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이것에 대해 농담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 그는 어머니에게 옥스포드 밤길에 나가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설명했다. 그의 동기 중 한 명이 저녁 일곱 시쯤에 커피숍 입구에 서있었는데 그 때, 어떠한 사람이 뛰어 지나가면서 그 학생의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와 가발을 확 낚아챘다. 존은 말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로 부터 상당히 안전한 것 같아요. 제 머리를 벗기거나, 저를 통 채로 잡아가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소득이 없을 테니까요.”

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학업에 계속 매진했다. 그의 가족은 존을 뒷받침 해줄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거나 성직자가 되는 것으로 선택이 한정되어 있었다. 존은 존경받는 사제가문의 출신이었지만,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지 확신이 없었고, 성직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1724년 존의 아버지는 관리해야 할 두 번째 교구를 지명 받았다. 그 새로운 교구는 루트(Wroot)에 위치한 곳으로 엡워스에서 약 5마일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이 두 곳은 겨울이 되면 습지에 물이 올라와 길이 막혔다. 새로운 교구는 사무엘 웨슬리는 일 년에 50파운드를 추가로 지불하였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일을 도울 부사제를 고용하여 두 교회 중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쓰였다. 존이 졸업하면 엡워스로 돌아와 아버지를 도울 부사제가 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존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한 만남으로 무엇인 문제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다.

추운 어느 날 밤, 존은 대학 정문을 들어서다가 우연히 학교 수위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수위는 문 옆에서 얇은 외투 하나만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존은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따뜻한 코트를 입고 뜨거운 차를 마시라고 말했지만 수위는 자신이 가진 것은 이 얇은 외투가 전부이고, 매일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외투가 있는 것과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진 것, 밤에 누워 잘 수 있는 마른 땅을 주신 하나님

께 감사했다.

존은 그의 대답이 매우 놀라워서 그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고, 누울 자리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군요.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 있으신가요?”

그 수위는 존의 눈을 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그를 섬기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네.”

그날 밤 존은 침대에 누워 수위가 했던 말을 생각했고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왜 나는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가? 어떻게 수위는 자신을 안락하게 해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도 아직 깨닫지 못한 나와는 달리, 그는 의로운 삶의 비밀을 발견한 것인가?’ 당시 존은 이러한 어려운 질문의 해답을 알아내지 못하였지만,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질문에 대한 탐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5장.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

대학에서 수위와 나누었던 그 짧은 대화는 내면에서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고, 존은 진정한 영적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도 어려운 여정일 것이다. 그의 탐구는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의 「거룩한 삶과 죽음의 법칙 (*The Rules of Holy Living and Dying*)」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책은 해답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들을 남겼다. 그 중 하나는 예정론에 대한 개념이었다. 영국 국교회에서는 교회에 나올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거나 또는 이미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관점은 프랑스 신학자인 존 칼뱅(John Calvin)과 그를 따르는 칼뱅주의자들에 의해 발달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존은 만약 어떤 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교리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을 하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이코버스 알미니우스(Jacobus Arminius)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이 교리를 처음으로 발표했으므로 이 교리를 알미니아니즘(Arminianism)으로 불렀다.

존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그는 두 관점에서 성경구절을 보게 되었다. 존은 혼란스러울 때면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머니께 조언을 구했다. 복잡한 내용의 편지를 본 그의 어머니는 자신 또한 유년시절에 똑같은 문제로 고민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론을 아들과 나눌 수 있음을 행복하게 여겼다.

아들아,

나는 종종 인간이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택함 받은 일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기울이는 것보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탐구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헛된 일은 아닌지 늘 궁금해 했다.

이러한 연구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주기 보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대로 두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너는 이 문제에 대해 만약 그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찾아주지 못하면, 아마도 그 분야에서 너보다 더 자격을 갖추신 아버지의 조언을 구했을 것이다.

이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예정론의 교리는 매우 충격적인 이론이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죄의 권위자로 위탁하기 때문에 이 교리는 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그 교리적 입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영생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은 굳게 믿지만, 반대로 이 교리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나, 인간의 자유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않고, 내일의 태양이 뜨는 이유를 아는 것보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시에 더 많은 이유들을 설명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내가 예정론에 대해 생각하는 전부이다.

이 편지로 존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그는 어머니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중요한 특징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택하기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남겨져 있다고 믿었다.

예정설에 대한 문제는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겼다. 존은 루터교 신자들과 칼빈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과 사역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의견들은 그를 더욱 문제의 주변만 맴돌게 했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생각 중,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교회에 그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1724년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에서 학사학위 졸업을 했을 때, 영국 국교회 사제서품을 받기 위해 빠듯한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석사학위과정을 등록했다.

그리고 이후 1년은 그가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혼란스러운 해였다. 이번에 그의 문제는 신학적 사안이 아니라 젊은 여인들, 정확히 말해 4명의 여인들과 얽힌 문제였다. 존의 친구 로빈 그리피스(Robin Griffith)는 자신의 친구들이모인 새로운 모임을 소개시켜주었다. 그 모임은 옥스포드 서부에 있는 스탠튼지역의 콧스월드 마을(The Cotswold village of Stanton)에 있었는데, 존은 시간이 날 때 마다 걸거나 말을 타고 스탠튼에 갔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춤 또는 최신 문학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는 키가 작고 특별히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에서 많은 젊은 여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진지했고, 아주 지적이었으며, 모임에 참여한 다른 이들과는 많이 달랐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7명의 보모들과 글 읽기를 잘하는 누나들에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에 여성을 지적으로 동등한 대상으로 여겼다. 이러한 성격으로 존은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의여인들로부터 이목을 끌었고, 그들은 존이 말한 모든 단어를 기억할 정도였다. 그 젊은 여인들은 세 명의 자매, 샬리(Sally), 엘리자베스

(Elizabeth), 다마리스 켈크만(Damaris Kirkman)과 20살 과부인 매리 펜다브즈(Mary Pendarves)였다. 이 4명 모두는 결혼에 관심이 있었고, 존을 결혼하고 싶은 남편감으로 보았다.

모든 관심이 존에게 향하는 반면 그는 혼란스러운 자신을 발견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할 때,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질 때면 더욱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은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샬리 켈크만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어있었다. 적어도 약혼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샬리가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 둘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샬리는 결국 존을 피해 지역학교에 다니는 교사와 결혼을 했다.

존은 이러한 상황으로 충격과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는 샬리의 통찰력에 많은 의지를 했었고, 그녀와 모든 것에 대하여 깊게 대화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결혼은 못하게 되었어도 존은 어떻게든 샬리와 나머지 세 명의 여인들과의 우정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 각 여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어느 한 편지에서, 샬리는 중세시대 독일의 수도자 토마스 아 켐피스(Tomas a Kempis)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를 추천했고, 존은 그녀의 조언대로 도서관에서 그 책 한 부를 읽었다. 그 책의 내용은 존에게 도전이 되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세상에는 반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또는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지는 자,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책을 읽고, 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심했다. 이러한 목표를 마음에 두고, 존은 삶에 대한 새로운 지침표를 작성했다.

삶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일반규칙

언제든지 당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지를 생각하고 주의 행동을 따라하라.

시간 선용을 위한 일반규칙

1.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것-과도하게 잠을 자지 않는다.
2. 당신의 부르심에 성실할 것
3. 가능한 모든 여가시간을 신앙 안에서 선용할 것
4. 모든 휴일을 거룩하게 보낼 것
5.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호사가 즉, 남의 일에 참견이 많은 사람들을 피할 것
6. 호기심, 쓸모없는 일과 지식을 피할 것
7. 매일 밤 자기 자신을 점검 할 것
8. 적어도 하루에 헌신을 위한 한 시간을 계획하지 않고는 일정을 진행하지 말 것
9. 온갖 종류의 성냄과 화를 피할 것

마음가짐에 대한 일반규칙

1. 일의 마지막에는 모든 행동을 돌아볼 것
2.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시작할 것
3. 모든 중요한 일을 기도로 시작할 것
4. 하고 싶은 일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

하루에 두 번씩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에 존은 그의 지침표를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규칙들을 잘 지켜낼 지에 대해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1725년10월 19일, 22살에 존은 영국 국교회의 사제서품을 받았다. 그의 앞에 밝은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은 성공회 교회의 교역자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링컨 컬리지(Lincoln College)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옥스퍼드에 위치한 링컨 컬리지는 링컨셔(Lincolnshire)출신의 청년을 교육시키는 것에 전념했다. 따라서 대학의 몇몇 교수자리는 링컨셔 출신의 사람으로만 채워졌다. 애플워스는 링컨셔에 위치하기 때문에 존이 아직 석사과정에 있을지라도, 교직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존은 링컨 컬리지의 자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해 여름에 존은 링컨셔와 주변지역의 영향력 있는 성직자를 만나 지원합격에 도움이 될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애플워스로 향했다. 그가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만사가 다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 해 초, 존의 누나인 28살 헤티는 지역변호사와 사랑에 빠졌다. 사무엘 웨슬리는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고, 딸에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헤티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 곤란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갑자기 헤티가 결혼하기로 생각한 그 남자가 떠나면서 헤티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몹시 화가 난 사무엘 웨슬리는 딸에게 처음에 청혼을 했던 배관공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했다. 불행하게도 떠돌이 배관공인 윌리엄 라이트(William Wright)가 목사관을 찾아왔고, 매우 기뻐하며 새신부인 헤티를 데리고 떠나버렸다. 그녀가 떠날 때, 사무엘은 다시 사제관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하며, 차라리 어렸을 때 죽었더라면 가족이 이러한 시련에 빠지지 않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잔나 웨슬리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가슴아파했다. 다른 자매들은 헤티를 막 대하는 아버지의 처사에 분노했고, 아버지의 가혹한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이유로 존이 집에 왔을 때 가족들은 화목하지 않은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사무엘 웨슬리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존이 집에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오른손을 못 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웨슬리는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글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존은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에 입학한 동생 찰스와 함께 옥스포드로 돌아왔다. 옥스포드에 돌아온 그는 링컨 컬리지 연구원자리의 합격여부를 기다리면서 석사과정을 계속 이어나갔다. 대학의 새로운 연구원 합격발표가 두 번이나 지연되었고, 3월이 지나서야 존은 자신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겨울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존은 엠플워스로 돌아가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역마차를 타고 집에 갈 수가 없었다. 그는 75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기로 결심했고, 한참 시간이 걸려 집에 도착했을 때, 멋진 몸매의 자신을 보게 되었다.

엠플워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존은 룯트(Wroot)교구의 제자직으로 일하면서 아버지 사무엘이 쓰고 있던 오년 전 화재로 인해 타버린 엄청난 양의 율기 강해서를 마무리 짓는데 도왔다. 이 기간에 존은 젊고 예쁜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무엘은 영적인 일을 하는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그 젊은 여인이 사제관에 오는 것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딸 헤티의 불행한 결

혼생활과 유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존은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났고,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의 끝맺음으로 누이의 이야기와 누이에게 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에 못 미치는지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무엘도 아들의 설교에 몹시 화가 났고, 존은 의무적으로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긴 했지만, 존은 그 다음 주에 같은 주제로 더 통렬한 설교를 했다. 두 번째 설교가 있는 후부터 그 둘은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가족관계에 있어 사제관은 긴장감이 돌았고, 존이 링컨 컬리지에 새로운 직임을 맡기 위해 다시 옥스포드로 향했을 때, 나머지 가족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원칙적으로 존은 한 학급의 영적관리를 책임 맡고, 학생들에게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철학과목을 가르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영적가치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존은 학급 학생들을 규칙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존은 석사과정을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가족을 만나거나 다른 교구에 장기간 방문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편안한 생활이 끝이 나게 되었다. 1792년 10월 어느 날, 여행길에 있던 존은 학교로부터 전보를 받았고, 그 편지의 내용은 존에게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의 영적상태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던지, 아니면 지금의 직위에서 물러나라는 지시의 내용이었다.

학교가 학생의 영적관리에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된 이유는 당시 유행했던 두 이론을 가르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아리우스주의(Arianism)라고 알려진 이 이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God)이라는 것을 부인했고, 이신론(Deism)은 하나님은 인류와 교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은 인류의 일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대학의 이사들은 이러한 이단들이 교내에서 신자를 모집하는 것이 염려되었고, 이 문제를 관여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당시 그들은 존 웨슬리에게 돌아오라고 한 요청이 학교의 도덕적 풍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사건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6장. 새로운 도전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존은 옥스포드로 돌아갔고, 그 곳에서 자신의 동생인 찰스가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에서 홀리클럽(Holy Club)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모임은 사실 아주 작은 규모로, 회원으로는 그를 제외하고 아일랜드 출신의 학생인 윌리엄 모건(William Morgan), 존 갬볼드(John Gambold) 그리고 샬리 켈크만(Sally Kirkman)의 남동생인 로버트(Robert) 이렇게 겨우 세 명이였다. 이 모임의 목표는 간단했다. 회원들과 주일날 저녁에 고전문학과 성경을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씩 옥스퍼드 대성당에 가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었다. 홀리클럽에 있는 모든 이들이 존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존은 그들과 갖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대감을 기뻐했고, 열심히 모임에 참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되었고, 개혁자가 되었다. 존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자신의 생각들을 회원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존은 매주 하는 성경공부의 날 수를 점차 늘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성경모임을 매일 가졌다.

함께 모인 모든 시간들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점검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존은 점검 목록표를 그들에게 주어 매일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나는 모든 개연의 기회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또는 악을 막기 위한 일들로 삼았는가?
2. 나는 이웃을 섬기기에 너무 가까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가?
3. 나는 매일 적어도 한 시간을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보내고 있는가?
4. 나는 낯선 이와 대화에서 종교가 아닌 것과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설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5. 나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공기도회와 설교, 성찬식을 참여하라고 강권하는가?
6. 나는 성례를 참석 한 후에, 같이 갔던 이에게 이전에 내가 했던 말 중에 틀린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가?

7. 나는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에게 전력을 다해 가르치고 강권하고 있는가?
8. 나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의 이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9. 다른 이들을 향한 나의 행동에서 선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오래지 않아, 옥스포드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이 점검표를 손에 넣게 되었고 홀리클럽 회원들의 노력에 대해 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빈정대며 홀리클럽을 성경좀벌레(Bible Moths), 성경광신자(Bible Bigots), 또는 방법주의자(Methodist)라고 불렀다. 메소디스트, 즉 방법주의자라는 말이 맞을 법 한 이유가 그 무리에 속한 이들은 모든 일에 대한 방법(method)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는 심지어 그들에 대해 운을 띄워 글을 짓기도 했다.

*그들은 방법에 따라 먹고, 방법에 따라 마신다.
 모든 것을 방법에 맞게 하라. 그러나 생각하라—
 느슨한 행실의 성직자를 비난하고,
 평신도의 인기를 더 얻기 위해
 방법만이 모두를 가르쳐야한다.
 그들 스스로가 칭하는 방법주의자가 있는 곳에서*

다른 이들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존과 홀리 클럽을 따르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실 존은 속으로 이러한 박해를 기뻐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³⁾”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은 그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다른 남자청년들도 홀리클럽에 가입했지만, 첫 해 동안의 총 회원 수는 15명을 넘지 못했다.

1730년8월 초에 윌리엄 모건은 옥스포드 성 교도소에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방문하러 갔다. 그는 죄수가 넘쳐나는 감옥에서 채무채소자들과 일반범죄자들이 자신이 방문한 그 죄수처럼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것을 보았다. 성 교도소는 더럽고 눅눅한 곳이었지만, 윌리엄은 수감자들이 그의 방문으로 인해 용기를 얻는 것이 놀라웠다. 죄수 중에 대다수가 수감된 이후에 단 한명의 방문자도 없는 이들이었다.

3) 마태복음 5:11

방문을 마친 윌리엄은 존과 찰스에게 성 교도소의 상황에 대해 알렸다. 감옥안의 상황과 밖의 사람들의 위로와 만남을 갈망하는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두 형제의 마음이 움직였다. 윌리엄은 이러한 죄수들이 물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한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존과 찰스는 그의 말에 동의했고, 1730년 8월 25일 윌리엄과 함께 성 교도소로 향했다.

존은 감옥 안에서 보여 지는 것들과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죄수들이 마음을 열어 준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대화의 과정에서 채무채소자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감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갑작스런 불운으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가 게을러서 또는 빚을 방관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존은 전자의 이유로 수감된 이들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고, 어쩌면 홀리클럽의 회원들이 돈을 모아 일부 채무채소자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수감되어있는 기간 동안 그들의 가족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늘 그랬듯이 존은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성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방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놀랍게도 존의 아버지가 보낸 답장에는 그도 옥스포드대학을 다닐 당시 교도소에 방문을 했었고,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멋지고 수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존은 아버지의 답변을 매우 기뻐하며, 성교도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위하여 그만의 질서정연하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정계획을 세웠다. 존은 일정표에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교도소 방문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뿐만 아니라 홀리클럽의 회원들은 모금을 시작하고 그 돈을 선교사에게 보내 도움을 받을 만한 수감자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였다.

1731년 여름, 사무엘과 수잔나 웨슬리는 딸 마르타와 두 하인을 데리고 역마차에 올랐다. 말이 빗장을 밀어 내려고 할 때였다. 마차가 앞으로 흔들리며 쏠리더니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무엘이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의 머리가 땅에 쿵하고 부딪혔다. 다른 이들이 사무엘에게 다가갔을 때 그의 숨은 이미 멎어있었고, 몸도 파랗게 변해있었다. 하인 중 한 명이 사무엘의 머리를 뒤로 젖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했지만, 66세 노년의 남성에게는 고통스러운 심각한 부상이었다.

존이 이 사고를 전해들었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사고 외에는 다

른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사고는 존에게 한 가지 문제만을 떠올렸고,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일이었다. 존은 가족들이 엠피스에서 아버지의 직분을 대신하고,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압박을 줄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것은 존에게 내키지 않은 일이었기에 이러한 부수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에 존은 옥스포드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윌리엄 모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었다. 그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윌리엄은 급속하게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메소디스트를 비판하는 자들은 존이 윌리엄에게 기도와 금식을 너무 지나치게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존은 거룩함에는 지나침이 없다고 반론했다. 일치락뒤치락하며 논쟁이 붙어지는 동안, 윌리엄의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쾌적한 환경이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일랜드로 돌아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지요양은 효과가 없었고, 윌리엄은 1732년 8월에 사망하였다.

존은 윌리엄이 죽기 전에 종교적 환각으로 고통 받았고, 그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신체적 제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존은 거듭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 물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윌리엄의 아버지가 존에게 분노의 편지를 보내어 이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그는 아들의 사망원인이 극단적인 가르침과 훈련 때문이라며 존과 메소디스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편지내용을 들은 옥스포드의 일부 학생들은 윌리엄의 사망원인을 존에게 추궁했다. 그로 인해 존은 링컨대학 연구실을 나올 때, 다른 이들의 야유를 견뎌야하는 일을 종종 겪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 그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잠잠해졌고, 존은 1733년 여름에 그리스도교 지식진흥단체(The Society for Promoting Chirstian Knowledge)의 회원이 되었다. 그는 단체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런던으로 떠났다. 1733년에 존은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를 만났다. 조지는 옥스포드 펨브록 칼리지(Pembroke College)의 근로장학생(Servitor)이었다. 근로장학생은 학교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경

제적 원조를 받는 학부생을 일컫는다. 조지는 홀리클럽과 회원들을 동경했다. 존은 그를 링컨 칼리지로 아침식사에 초대했고, 둘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다. 사실 그 둘은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둘의 삶은 죽기 전까지 여러 면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 다음해인 1734년, 웨슬리가족은 결혼식으로 새해를 열었다. 그 해 1월, 39세의 나이로 결혼을 포기했던 메리 웨슬리가 존 화이트램(John Whitelamb)사제와 사랑에 빠졌다. 존 화이트램은 사무엘웨슬리를 대신하여 루트지역 교구에서 부사제로 활동했다. 존 웨슬리는 안타깝게도 옥스포드에서 맡은 일들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누이가 행복한 결혼을 올렸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불행히도 메리의 행복한 삶은 얼마 안 되어 끝이 났다. 결혼생활 일 년 만에 출산을 하다가 아이와 함께 사망한 것이었다.

1735년1월, 존은 어머니로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너희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고 계신단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태를 이겨내기 위한 감사조차 잊으신 듯하다. 그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두렵기만 하구나.” 이 편지로 인해 존은 미래를 직시하게 되었다. 동생 찰스는 아직 사제서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물론 이 둘은 그 일을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존과 그의 형인 사무엘 중 한 명이 엡워스의 교구사제직을 맡아야만 했다.

당시 사무엘은 데본에 있는 티버튼 그래마 스쿨(Tiverton Grammar School in Devon)의 교장이었고 엡워스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존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의 직분을 대신하며 가족을 도울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옥스포드의 학생들이 존과 메소디스트들을 이상한 이들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라는 제안을 했다. 존은 그의 형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고, 사무엘에게 자신이 왜 옥스포드에 남아야 하는지를 적어 답장으로 보냈다. 항상 탁월한 변론가였던 존은 엡워스로 돌아가 목사직을 맡으라는 형의 주장에 대해 26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이상한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는 대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1.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멸시를 받을 것이다.
2. 멸시를 받기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3. 멸시를 받는 것이 사람의 선한 일을 방해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그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4. 엡워스가 옥스포드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선을 행함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고여 있는 하천의 물보다 솟아나는 샘물을 달게 하는 것이 더 큰 이점이 있는 이유와 같다.

1735년 4월, 수잔나는 자식들에게 엡워스로 돌아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라는 긴급한 요청을 했다. 존과 찰스는 곧바로 사제관을 찾아 침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 앉았다. 당시 존은 아버지가 자신의 직분을 맡으라며 강권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들에게 밝게 빛나는 눈으로, 그리고 힘은 없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적증인, 나의 아들아, 내적증인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 말은 존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동생 찰스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도 잊을 수 없었다. “흔들리지 말거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분명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나는 끝내 보지 못했지만 너는 보게 될 것이다.”

1735년 4월 26일, 사무엘 웨슬리는 엡워스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무덤에 묻혔다. 그는 엡워스와 펜스지역의 사람들을 40년 넘게 섬겼으며, 어느 아들도 그의 직분을 대신 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웨슬리의 가정은 뿔뿔이 흩어졌다. 수잔나는 게인즈버러(Gainsborough)에서 여자 기숙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딸 에밀리아의 집으로 떠났고, 엡워스에서 지내던 크지아는 큰 오빠 사무엘과 올케 어슬라와 살기 위해 티버톤(Tiverton)으로 갔다. 반면 존과 찰스는 옥스포드로 돌아가 일찍이 삼촌 매튜 웨슬리(Matthew Wesley)에게 맡겨졌던 마르타를 방문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다. 마르타는 그때쯤에 존과 찰스의 친구이자 홀리클럽의 충실한 회원이었던 한 남자와 성급한 결혼을 했다. 그의 이름은 웨스트리 홀(Westley Hall)로 모두가 그 둘의 가정은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추문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불화가 생겼고, 이 사건은 웨슬리 일가와 교회 전체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서른두 살이 되던 해, 존은 더 이상 옥스포드 링컨컬리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존에게 엡워스 사제직에 대한 의무는 없었지만 느슨해진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된 이유였다. 그는 연구원 다음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조언을 얻기 위해 옥스포드 대학의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Corpus Christi College)의 교수인 존 버튼 박사(Dr. John Burton)를 방문했다. 존은 그를 그리스도교지식진흥단체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버튼 박사는 그 단체의 위원 중 한 명으로서, 북아메리카 새로운 식민지인 조지아를 위한 기금단체의 이사이기도 했다.

존은 버튼박사에게 자신이 느끼는 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존의 눈을 바라보며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네. 제임스 오글소프(James Oglethorpe)를 만나보게.”

존은 이미 제임스 오글소프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군대의 장군이었고 당시 영국의회 의원이었다. 오글소프는 의원으로서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처해있는 채무채소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결국 모든 채무자들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을 교도소로 몰아넣는 일은 그들을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살게 할 뿐 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조차 단절시키기 때문이었다. 오글소프는 개혁을 주장하였고 결국 북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캐롤라이나(Carolina) 북부에서부터 스페인령의 플로리다 남부까지 이르러한 식민지를 조성하였다. 이 지역은 아메리카를 지배하는 영국과 스페인 두 국가 간의 완충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채무자들과 종교적 박해의 이유로 도망쳐온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제임스 오글소프는 의회에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를 지지해 주었던 조지 왕 2세(King George II)로부터 새로운 식민지 헌장을 승인받았다. 그 헌장은 21년 동안 기금신탁위원회에 위탁되었고 사바나(Savannah)와 알타마하(Altamaha)강 사이의 땅과 남해(South Sea)의 서쪽지역을 포함했다. 21년의 통치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신탁기금위원회는 식민지의 총독 역할을 했고,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영국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등 이 지역만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헌장에 따르면, 이 식민지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졌다. 첫째는 불운의 가난한 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 둘째는 종교적 박해로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 셋째로 영국령인 캐롤라이나와 스페인령의 플로리다 사이에

군사적 방어망을 구축할 것이었다. 21년의 기간이 끝나자 이 지역의 통치권은 영국 왕실로 넘어갔다.

이 새로운 식민지는 조지 왕 2세에 경의를 표하여 조지아(Georgia)라고 불렀고, 1733년 초에 제임스 오글소프와 35명의 가족들은 이곳으로 이주했다. 그해 봄, 그는 사바나강을 배를 타고 건너다가 강의 절벽 아래로 보이는 도시를 발견하였고 이곳을 강의 이름을 따서 사바나(Savannah)라고 불렀다.

버튼 박사는 그 이후 2년 동안 조지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존에게 설명해 주었고, 오글소프가 식민지를 위한 모금을 위해 영국에 다시 돌아온 것과 식민지주민으로 더 많은 남자 성직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었다. 존은 당시 아버지가 예전에 쓰셨던 유품강해서 출판일정을 잡기위해 런던으로 가려던 참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버튼 박사는 런던에서 존이 오글소프를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었다.

제임스 오글소프는 건장한 체구에 넓은 어깨를 가진 사람이었고, 행동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존을 따뜻하게 맞이하고는 조지아 식민지에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글소프는 유럽출신의 성직자들과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곳으로 이주하는 지를 설명해주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영적갈급을 도와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직자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다. 존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식민화하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확신은 없었다. 계속해서 오글소프는 그에게 조지아로 올 것을 권하며, 사바나에 있는 한 예배당을 담당하는 사제로서 일해 주기를 바랐다. 존은 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옥스포드로 돌아온 존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조지아에 대해 생각을 할수록, 이 때가 변화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임스가 제안한 것들이 더욱 마음에 끌렸다. 오글소프는 사바나에있는 식민지 주민들의 영적필요를 돕는 일을 존에게 말했지만, 존의 마음을 때려시킨 것은 그 곳의 인디안들 또는 그가 조지아 식민지에 거주했던 원주민을 일컫던 “고결한 야만인”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일이 그에게 충분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존은 또한 조지아로 떠나는 이유 중에 좀 더 사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나머지 부차적인 이유 중 나의 주된 동기는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희망 때문이었다.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서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싶다. 그들은 성경본문 해석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며, 내용을 곡해 할 만한 헛된 철학을 가지지도 않았고, 사치스럽거나 향락적이지도 않고, 반갑지 않은 진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탐욕적이거나 욕망에 사로잡힌 해설자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주의 자비로 인하여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실천의 길을 열며, 특히 유혹을 받을 때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쉽게 제거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마다 했던 것처럼, 존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 사무엘에게 편지를 보내 조지아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무엘은 조지아로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수잔나는 이러한 답장을 보냈다. “나에게는 20명의 아들이 있다. 나는 나의 아들들이 잘 되어가는 것으로 마땅히 기뻐할 것이다. 비록 앞으로는 그 아들을 절대 볼 수 없다 해도 말이다.” 존은 또한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서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지아로 사제부임을 고려했었고, 그의 나이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제임스 오글소프에게 편지를 보내어 “고려해보았습시다만, 10년 전이었다면 저는 나의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기쁘게 헌신하며 일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존에게 이러한 소식은 그의 아버지가 무덤을 넘어 아들을 지지하며 보내는 서신과도 같았다.

존은 버튼박사와 제임스 오글소프에게 조지아 식민지에 성직자로서 헌신하겠다고 편지를 보냈고, 그 두 사람은 사바나 지역을 섬기겠다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존은 조지아에 혼자 갈 생각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할 몇 명의 다른 청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런던 상인의 아들인 찰스 드라모트(Charles Delamotte)가 따라나서자 그의 친구이자, 옥스포드대학의 홀리클럽 회원이었던 벤자민 잉햄(Benjamin Ingham)도 그 길을 따르기로 했다. 존에게는 조지아에 함께 가자고 설득해야 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생 찰스였다.

처음 찰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형이랑 조지아에 가라고?” 그는 소리 질렀다. “내가 거기서 형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난 아직 정식으로 임명받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동생의 거절을 받아드리기 싫었던 존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일들을 시작했다. 그

는 런던의 교단감독에게 찰스의 사제서품을 요청하며, 제임스 오글소프의 개인비서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설득했다. 모든 게 정리 된 것을 들은 찰스는 형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10월초 4명의 남자는 템즈강(Thames River)에서 그레이브젠드(Gravesend)로 떠났다. 이 곳은 시몬즈 호(Simmonds)의 선착장이 있는 곳으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시몬스 호의 갑판에 오른 존은 자신감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고결한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라며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생각과 거리가 멀었다.

7장. 조지아

1735년 10월 14일 영국의 그레이브젠드에서 조지아로 떠나는 시몬스 호가 항해를 시작했다. 이 날은 존에게 있어 기념해야 할 중요한 날이었다. 새로운 땅을 향해 새 출발을 하는 날이었고, 그 새로운 땅은 존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주의 나라만을 생각하도록 해줄 곳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존은 이러한 뜻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영적책임이 있는 다른 세 명의 남자들을 위한 엄격하게 계획된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존이 알린 일정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것은 게으름으로 간주했다. 일어나면 개인 기도를 한 시간 동안 했다. 그리고 5시 부터 7시까지 웨슬리형제 방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이것을 다 마치면 아침식사를 다른 승객들과 했다. 그 후 한 시간 동안 공기도회를 가졌는데, 기도회에 관심이 있는 승객은 참여가 가능했다. 존은 사바나에 도착하면 그들의 사제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참여한 승객들에 대해 면밀히 적어두었다. 아침의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다. 찰스 웨슬리는 설교와 시를 쓰는 것을 원했고, 찰스 드라마트는 그리스어를, 벤자민 잉험은 신학서를 읽거나 다른 어린이들에게 성경이야기를 가르치길 원했다. 존은 독일어를 배우기로 했다.

존이 독일어를 선택한 주된 동기는 80명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과 함께 배에 오른 모라비아인들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독일어를 사용했다. 그 모라비아인들은 경건파 그리스도교인이며, 그들의 종교는 현재 체코(Czech)라고 불리는 모라비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종교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카톨릭 주교에 의해 더욱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 중 대다수가 독일로 이주했고, 색슨 카운트 니콜라우스 루트비히 폰 친첸도르프가(Saxon Count Nicholas Ludwigs von Zinzendorf) 제공한 헤른후트(Herrnhut)지역의 쉼터로 갔다. 그들이 세운 신앙공동체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사실 두 명의 덴마크인 선교사들, 1712년 앵위스에서 수잔나 웨슬리가 사람들에게 읽어주던 이야기 속의 선교사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 모라비아인들의 한 무리는 이미 조지아에 정착을 하고 있었고, 시몬스 호에 올라탄 이 무리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었다. 모라비아인 중에 영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존은 그들의 신학체계와 유럽에서의 교회 경험에 대해 몹시 배우고 싶어 했다. 조지아로 향한 항해가 약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존은 목적지에 도착할 썸 이면 독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오에 이 4명의 남자들은 다시 만나 어떻게 하면 아침 일정을 잘 지킬 수 있을 지 논의하고 1시에 점심을 먹기 전에 오후계획에 대해 자세히 나누었다. 점심이후 그들은 4시간 동안 승객들과 영적 상태에 대한 대화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영국성공회 교리문답서를 가르쳤다.

두 시간 더 개인 기도를 한 후, 함께 성경을 읽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모라비안교도들의 기도회에 참여하여 한 시간 정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다. 저녁 8시가 되면서 4명은 다시 만나 그날의 오후일정을 잘 수행했는지 점검하고, 믿음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이 있었는지 각자의 영혼을 돌아보았다. 밤 10시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6시간을 잤으며, 그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정을 보냈다.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음식이경건함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존은 그들에게 식사에 나오는 고기와 와인을 포기하라고 말했고, 시몬스 배에 타 있는 동안에는 빵과 물만 먹기로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이러한 식이요법이 경건을 지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4명 모두 저녁시간에는 금식 할 것을 명했다.

모임의 지도자로서, 존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깨어있는 동안 매 시간의 마지막 5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하

려고 노력했고, 매일 마다 자신의 감정, 믿음 그리고 행동에 대해 작은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점검하는 일기를 썼다. 자신의 일기를 다른 이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는 복잡한 암호를 고안해냈다. (1930년대까지 그의 암호는 해독되지 못했다.) 존은 또한 언젠가 출판 할 희망을 가지고, 공개일지를 준비했다. 그의 글에는 조지아로 떠나는 긴 여정동안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그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후에 생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1736년 1월 25일 일요일] 멋진 객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다의 물결은 평소와 달랐다. 바닷물은 가득했고, 물결이 잔잔하게 배의 옆을 지났다. 그러나 순간파도가 올라와 나를 덮쳤고, 나는 정신이 멍해져서 다시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다친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다. 자정 무렵, 폭풍이 그쳤다.

그 다음날의 날씨는 더 악화되었고, 존은 이렇게 기록했다.

4시에 파도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거세졌다. 현재 우리는 파도에 대해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 “이 바다의 파도는 엄청나게 힘이 세고, 무서울 정도로 성나있다. 그들은 하늘의 천국 위까지 올랐다가 지옥의 바닥까지 내려간다.” 바람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로 우리의 주변을 으르렁거렸고,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로 거센 휘파람을 불었다. 배는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삐걱거리며 변화무쌍하게 움직였다. 이러한 흔들림 때문에 물건을 붙잡는 것도 어려웠고, 무언가를 잡지 않고는 잠시 서 있는 조차도 어려웠다. 10분마다 파도가 선미 또는 배의 옆에 부딪혔고, 어떤 이는 배가 수 천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폭풍의 순간, 이전에 은밀히 세례를 주었던 한 아이에게 교리에 따라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존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세례식을 행한 후, 모라비아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자 그들의 선실로 갔다. 그리고 존이 본 것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모라비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고, 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시편 중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파도는 높이 올라 부서지고, 주춧은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바닷물은 배 전체를 덮쳐버렸다. 그리고 갑판 사이에 물이 들어 마치 엄청난 깊이의 파도가 우리 모두를 집어 삼킬 것만 같았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영국인들 사이에서 나기 시작했다. 독일인들은 하늘을 올려보며, 쉬지 않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물어보았다. “두렵지 않던가요?” 그는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여성분들과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의 여인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몬스가 항해하는 동안, 존이 그 날 목격한 모라비아인들의 장면은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수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했다. 오로지 모라비아인들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고, 그들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믿었다. 존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자신은 이러한 전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는 배에 탔던 다른 이들처럼 죽음을 무서워했다. 이러한 현실은 그를 속속들이 흔들어놓았고, 존은 자신이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영국인들에게 경건한 본이 되고 있는지 의심되기 시작했다.

시몬스 호가 조지아의 멋진 해안에 정박했을 때, 존처럼 안도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 1736년 2월 5일 배는 빗장을 걸고 사마나강 입구에 닻을 내렸다. 수많은 섬들을 한 데 모여 만들어진 푸른 저지대의 풍경이 펼쳐졌다. 존은 군도의 맨 끝자락에 있는 섬의 이름이 타이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무로 투박하게 만들어진 등대를 보았다. 제임스 오글소프는 그 등대는 자신이 영국에 나가 있는 동안 지어놓으라고 시킨 것이라고 했다.

존은 다음날 일기에 짧지만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기도회에 대해 글을 썼다.

아침 8시쯤, 우리는 미대륙의 땅에 발을 디었다. 그곳은 피퍼섬(Peeper Island)이라 불리는 작은 무인도였고, 타이비 섬 맞은편에 있었다. 오글소프장군은 우리를 언덕으

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했다. 그리고 사바나로 가기 위한 배를 가져왔다. 나머지 다른 이들이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작은 무리들을 불러 함께 기도를 하자고 했다. 설교의 몇몇 부분이 우리의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특히 세례요한의 담대함과 고통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주가 하신복음의 첫 가르침이자, 배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건져내는 평강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⁴⁾”

피피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해안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로 돌아갔으나, 오글소프와 몇몇의 남자들은 밤에 시몬즈 호의 작은 배를 타고 사바나강의 상부를 돌아보았다. 존은 자신이 시몬즈 호로 돌아온 이후에 생겨난 상황에 대해서는 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존과 찰스 웨스리, 찰스 드라마모트, 그리고 벤자민 잉험은 피피 섬의 해안가를 오랜 시간 동안 걸으며 대화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배로 돌아왔을 때, 존은 많은 선원들과 승객들이 술에 취해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술 취한 이유는 식민지 출신의 정착민 중 한 명이 배를 타고와 닻을 내린 시몬스호에 왔고, 몇 통의 럼주를 밀반입 시킨 게 분명했다. 그리고 존이 배로 다시 돌아왔을 당시에 사람들은 그 술통을 열어 마시고 있었다.

존은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술에 취해 갑판에서 넘어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게 해서 술을 깨우는 방법 외에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다음날 오글소프는 사바나에서 돌아왔고, 존은 여전히 자신이 보았던 광경에서 헤어 나오고자 애쓰고 있었다. 숙취에 시달리는 승객과 선원들은 오글소프를 반가이 맞이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돌아오면서 공급물자를 반겼는데,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슴고기, 칠면조, 빵과 무와 같은 신선한 음식들로 그동안 배에 있었던 승객 모두가 4개월 동안 보지 못한 것 들이었다. 배의 요리사는 자원하는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피피섬에서 공수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존은 빵과 물만을 고집하였으며, 신선하고 기름진 음식들을 거부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존은 해안을 따라 걷기위해 나섰다. 존이 걷는 동안 모라비안교도의 주교인 어거스트 스팅겐버그(August Spangenberg)가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4) 마태복음 14:27

어거스트 스펡젠버그는 식민지에 있는 모라비안교도의 지도자로서 오글소프가 사바나에서 시몬즈 호로 돌아올 때 같이 합류한 사람이었다. 존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았고,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 그도 존에게 말을 걸었다. 파도가 잔잔하게 모래 위를 덮을 때, 스펡젠버그는 파란 눈으로 존을 바라보며 대서양을 넘어온 항해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존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존이 침묵하자, 스펡젠버그는 추궁했다.

“예수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존은 소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라비안 주교의 심문에 존은 대답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존에게 심각한 동요를 일으켰고, 그는 결국 모라비안교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비결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소함대가 시몬즈 호 옆으로 왔고, 사바나강의 상류로 가는 10마일 길을 떠나기 위해 승객들과 그들의 짐을 내렸다.

제임스 오글소프의 지휘아래 사바나에 도착한 존은 사제의 직분을 받았다. 그 사이 동생 찰스는 오글소프 총독의 개인비서직을 받아 오글소프가 남부의 새로운 정착지인 프레데리카(Frederica)를 점검하는 길에 동행했다. 북아메리카의 영국령식민지로서 제일 최남단에 있는 프레데리카는 스페인령인 플로리다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벽 제 1선의 지역이었다.

존은 인디안 선교를 당장 수행하려던 참이었으나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만다. 존은 선교지를 넘겨받으면서 이전 사역자였던 사무엘 퀸시(Samuel Quincy)를 알게 되었다. 존이 지역의 축토 인디언(Chocktaw Indian)언어를 가능한 빨리 배우겠다고 말하자 퀸시 사제는 놀란 표정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존 웨슬리 사제가 해야 할 일은 영국출신의 정착민들을 위한 예배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디언들을 관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인디언들은 우리의 일들을 쉽게 오해하고, 프랑스나 스페인과 합류하려고 떠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존은 할 말을 잃었다. 성직자로서 해야 할 일 중에 인디언을 전도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니... 실제로 오글소프와 영국에서 대화를 할 당시 분명히 그는 그렇게 설명하였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존을 대서양을 건너 조지아로 데려오기 위한 술책으로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인가? 어느 것이 맞다 해도 존은 속임과 배신을 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아름답고 새로운 땅이라고 생각했던 조지아에서 선교를 하기에 좋은 토대가 되어주지 못했다.

존은 성직자를 위해 제공된 별관으로 갔다. 그러나 처음 몇일 동안은 매우 화가 나서 간신히 집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고 500명의 교구주민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사바나는 강의 상류 절벽위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이곳은 각 교차로가 넓은 길과 광장이 있는 철저하게 계획된 곳이었다. 길들은 50피트 넓이에 90피트깊이로 집들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원래는 대부분의 집들이 가로 24, 세로 16피트 크기의 대충 깎은 칠하지 않은 나무로 지어져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들은 더 넓은 새 집으로 바뀌었고, 흰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었다. 많은 집들이 말뚝 울타리로 둘러있었다. 사바나강이 옆으로 흐르는 그 절벽 아래에는 20개의 대포로 무장된 작은 요새가 있었다. 그곳은 주민들이 24시간 내내 보초를 섰다. 정착지 위에는 5에이커의 토지가 있는데, 정착민들 각자가 가족을 위해 농사할 수 있도록 주어졌으며, 그 곳 위의 토지는 45에이커의 농장으로 각 사람에게 또한 할당되었다.

1736년3월 7일, 존은 사바나에서의 첫 설교를 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이 곳 사바나의 시민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했다. 성찬식은 매 주일과 특별 연회일에 있을 것이고, 성공회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성찬을 받을 수 없다. 존은 또한 누구든 성찬식에 참여하길 원하는 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루 전 날에 참여의사를 알리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은 성공회의 사람이 아닐 경우 집도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의 여자들은 단정하게 모직이나 린넨 원피스를 입고 교회에 와야 한다고 했다. 장신구를 하거나 꾸며 입은 사람들은 차라리 집에 있으라고 했다.

당연하게도 이런 엄격한 규칙들은 즉각적으로 존에게 적을 만들어주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아기를 물속에 세 번을 담그는 것을 거부했고(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다른 가족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교파에 헌신된 성

도였다는 이유로 장례를 집도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일부 식민지주민들은 제임스 오글소프에게 존 웨슬리의 가혹한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새롭고, 엄격하고, 굴하지 않는 목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더 미묘한 방법을 택했다.

8장. 탈출

제임스 오글소프 총독은 사바나 남부에서 70마일 떨어진 세인트 사이먼스 섬(St.Simons Island)에 위치한 프레데리카(Frederica)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오글소프의 이주로 사바나 주민들은 웨슬리의 가혹한 목회 방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가 어려워졌다. 찰스웨슬리는 총독 개인비서였기 때문에 그도 같은 곳으로 이주를 했다. 그러다 찰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찰스가 오글소프의 업무 수반에 필요한 서류처리를 계속해내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글소프는 개인비서의 업무에서 많은 부분을 빼주었고 새로운 임무를 맡겼다. 그건 바로 프레데리카의 사제직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역할에서도 찰스는 문제를 겪었다. 그도 성도들에게 형처럼 엄격한 행동방식을 따르라고 가르쳤고, 지역주민들은 사바나의 주민들처럼, 찰스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규칙에 반감을 가졌다.

특히 앤 웰치(Ann Welch)와 비타 호킨스(Beata Hawkins) 두 여인은 웨슬리 형제와 함께 시몬스 호를 타고 건너온 이들인데, 찰스가 하는 설교를 점점 듣기 싫어했으며, 결국 그를 쫓아내려는 음모를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두 단계가 있었다. 우선 그들은 찰스에게 가서 각자 자신이 오글소프의 정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뒤 총독에게 찾아가 반대로 이전에 말했던 처럼 본인들이 찰스와 이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오글소프는 찰스가 놀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거짓말로 충격을 받았다. 점점 상황은 찰스에게 악몽처럼 변했고, 그 상황에 대해 믿을 만한 사람도, 사실도 없었다. 오글소프 총독은 찰스에게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물었다. 오글소프의 의견에 따르면 이 모든 문제는 찰스가 만든 것이고, 그가 너무 높은 수준의 신앙적 행위를 주민들에게 요구하여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레데리카에서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때 마침 존이 동생을 방문하러 갔다, 찰스는 아프고 암울해하고 있었다. 존은 찰스의 영을 일깨우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자, 결국 오글소프 총독을 설득해 동생을 영국으로 돌려보내어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1736년 7월, 찰스는 조지아에서 영국으로 떠났다. 그는 조지아 식민지에서 6개월을 채 지내지 못했고, 그곳을 떠난 것을 평생 마음의 짐으로 여겼다.

사바나에서 존과 그의 엄격한 방식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오글소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찰스와 함께 떠나버렸고, 존은 목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바나로 돌아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그곳에서 여자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는 소피아 홉키(Sophia Hopkey)로 시작되었는데, 18살인 그녀는 사바나 지역의 치안관사인 탐 커스톤(Tom Causton)의 조카였다. 소피아는 찰스 드라마트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었고, 존이 그곳에서 프랑스어와 종교수업을 가르쳤다. 존은 숙제를 봐주려 소피아에게 하루에 4번씩 방문하였고,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며 머틀우드 숲을 거닐었다.

존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드릴 사람은 아니었지만, 소피아와 엄청난 유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존은 자신의 이러한 감정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존은 일찍이 신약성경의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따랐고, 오래전부터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로 살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소피아는 그의 한계를 시험했고, 존은 담대하게 그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당시 자신이 결혼 할 수 없는 이유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소피아를 피했지만, 결국 존은 괴로운 상태에 빠졌고, 이 상황을 상담하기 위해 모라비안교의 목사인 조한스 톨쉬칭(Johanns Toltsching)을 찾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 어린 여인을 계속 만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조한스는 잠시 생각을 하고는 대답했다. “그녀와 계속 만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가?”

“그녀와 결혼을 해야만 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존은 대답했다.

“난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이해가 안가네!” 모라비안교 목사는 고함쳤다.

존은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그 대답은 자신이 원한 답변은 아니었다. 그러나 존은 계속 문제를 생각해보면서, 자신이 어떤 대답을 듣기 원했었는지 본인도 몰랐음을 깨달았다. 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는 찰스 드라마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

고, 그는 모라비안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로 찾아 결정 하자고 제안했다. 존은 이러한 방식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찰스는 메모지 세 장을 가지고 왔다. 첫 번째 종이에 “올 해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 것” 두 번째 종이에 “모든 상황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 것.” 세 번째 종이에 “결혼”을 적었다. 찰스는 그 종이를 접어 모자 안에 두었다.

존은 모자 안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쪽지 하나를 뽑았다. 펼쳐진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든 상황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 것.”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나, 존은 속마음으로 자신이 뽑은 답변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이러한 일들로 존은 자신이 소피아와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믿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은 소피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바나는 약500명의 거주민들이 사는 작고 고립된 마을이었기 때문에 우연하게도 존이 들린 곳에서 소피아와 마주쳤다. 소피아도 스스로 상황을 정리한 이후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소피아는 존을 포기하고 삼촌집에서 하숙하는 윌리엄 윌리엄슨(William Williamson)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윌리엄은 마을 각 처에서 좋은 사람으로 평이 난 사람이었고, 반면 존 웨슬리는 소피아 훅키의 짝으로는 미흡한 사람으로 평이 나있었다.

윌리엄과 소피아는 자신들의 결혼으로 존 웨슬리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캐롤라이나 남부의 사바나강 건너편에서 결혼식 올리기로 했다. 존은 결혼식이 거행되고 나서야 그 둘의 혼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분개했다. 특히 조지아지역에 미리 “혼인공지”를 하지 않은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혼인공지라 함은 윌리엄과 소피아가 그들의 사제인 존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결혼을 알려야 하고, 4주째 되는 주일날 존이 그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이 기간에 누구든지 그 결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 방법이 합법적인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회교의 혼한 관례로서, 성도들이 따르는 일이었다. 존은 윌리엄과 소피아가 숨어서 결혼 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 그는 소피아와의 상황을 해결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신혼부부를 축복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연스럽게 존의 행동은 윌리엄에게로 돌아선 소피아를 화나게 만들었고, 소피아는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 존은 소피아를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조차 싫었다. 그녀의 결혼에 대한 존의 불쾌한 감정은 1737년 8월 6일 정점에 이르렀다. 어느 날 소피아는 거룩한 삶을 위한 ‘존 웨슬리의 규칙’들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돌아오는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배도중에 소피아가 성찬을 받기 위해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을 때, 존은 그녀에게 직접 성찬을 집도 할 수가 없었다. 소피아는 사람들 앞에서 성찬식참여에 거절당한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은 존의 행동에 화가 났다. 그는 존이 소피아와의 결혼생활을 망치기 위해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존은 그들에게 자신이 단지 무리를 돌보고 염려하는 사제로서 일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바나의 주민들은 더 이상 존의 목회방침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소피아와 윌리엄 부부의 편에 섰다. 어느 날, 사바나에 대소동이 일어났다. 소피아의 삼촌인 토마스 커스톤이 마을에 있는 교구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수집했고, 8월 8일 아침 7시에 존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존이 손에 받은 조서장에는 사바나 법원의 서기인 토마스 크리스티(Thomas Christie)의 서명이 적혀있었다.

조지아, 사바나

모든 보안관들과 십일조를 걷는 자들, 또 그 외의 관계자들에게,

귀하 그리고 각자의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의해 존 웨슬리 체포하십시오.

윌리엄 윌리엄스와 소피아의 항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법률 집행관 중 한 명 앞에 데려와야 합니다. 소피아는 성도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주님의 만찬에서 성체를 집도 받지 못하여 명예회손으로 그를 고소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윌리엄 윌리엄스는 일천 파운드의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서는 귀하가 지역구내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증빙하는 영장입니다. 서기 1737년 8월 8일 자필 날인하여 작성함.

토마스 크리스티

영장을 읽은 후, 존은 급히 외투를 챙겨 보안관을 따라 자신의 혐의를 맡고 있는 법정으로 갔다. 그는 보석금으로 풀려났고, 식민지에서 달아나면 안 된다고 권고 받

았다. 그의 청문회는 12월 초로 일정이 잡혔고, 존을 도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오글소프총독은 안타깝게도 영국으로 떠나고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존은 그동안 식민지에서 적들을 많이 만들어놓은 탓에 조지아에서의 청문회가 공정하게 진행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다. 1737년 12월 2일 어둠으로 둘러싸인 토요일 이른 새벽, 존은 사바나의 사제관을 영원히 떠났다. 어두움에 몸을 숨겨 강의 끝에 있는 요새의 눈을 피해 사바나 강둑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존을 탈출시키기 위해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노을 저어 캐롤라이나 남부로 건너갔다. 그들의 계획은, 일단 캐롤라이나 남부에 도착하면 육지로 걸어가 습지와 숲을 건너 포트 로열(*Port Royal*)에 가는 것이었다.

그곳은 조지아를 탈출한 존과 배에 탄 일행 중 한 명이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었다. 존과 일행이 울창한 숲을 지나기 시작할 때 새벽이 깨기 시작했다. 곧 남자들은 방향을 잃어 버렸고, 자신들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들은 우연히 오두막을 발견하였고, 그곳에는 벤자민 아리에(*Benjamin Arieu*)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에게 포트 로열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았고, 노인은 좁은 오솔길을 가르쳐 주었다.

“저 블레이즈드(*blazed*) 나무들을 따라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거요.”

곧 무리는 길표시가 된 나무를 따라가며 오후 중반까지 진척을 보였으나, 그들이 산길의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길을 안내하는 블레이즈드 나무가 각 갈림길에 있었다. 어디로 가야할 지 고민하고 있을 때, 무리는 오른쪽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 마일정도 갔을 때, 그 길은 울창한 숲으로 막혀있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반대편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 길 또한 우거진 숲으로 막혀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4명의 남자들은 숲속에서 추운 밤을 보낼 준비를 했다.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3피트정도 땅을 파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받아놓고, 존은 자기가 싸온 작은 케익 하나를 4등분하여 다른 이들과 나눠 먹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존은 축축한 땅 위에서 단잠을 잤다.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포트 로열로 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한 낮이 되어도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하였고, 다시 노인이 살고 있는 오두막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 그곳에 도착했다. 노인은 그들이 길을 찾지 못했다는 말에 매우 놀라면서 다음날 아

침에 자신의 조카를 함께 보내어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을 때, 그 무리들은 다시 한번 벤자민의 오두막을 떠나 길을 나섰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조카가 포트 로열로 가는 길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길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노인의 조카는 좋은 방향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길의 끝에 있는 뾰족이 들어선 나무들과 덤불을 쳐내어 숲 안으로 들어가 늪지를 철벽거리며 걸어 나왔다. 이들이 더 걸려, 결국 무리는 포트 로열에 도착했다. 존은 항만에 정박한 잉글랜드행 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12월 22일에 존은 마침내 사무엘 호 (the Samuel)에 올랐다. 사실 그 배는 수 일 전부터 도착해 있었지만, 그 날 영국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선장은 존을 집까지 수송해주기로 합의해주었다.

과거 존이 조지아로 향하는 배안에서 자신의 영이 깨어나 바로 서길 기대했다면, 슬프게도 그건 오산이었다. 그의 첫 항해는 배 멀미로 시작해서 일반적 우울증까지 겪게 했다. 사실 그의 마음에는 높은 기대들로 넘쳐났었다. 그는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가 될 참이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단순한 삶을 살아 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엄청난 조롱을 당했다. 그는 인디언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고, 온갖 종류의 소문에 사로잡혀 그의 삶과 소피아의 삶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들이 오히려 다 혼란이 되었다. 이 일들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설상가상으로, 무언가 가능한 순간에는 폭풍우가 몰아쳤고,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인생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때에 찬송을 함께 부르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없었다면, 그는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지난 일 년 반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배운 것이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존은 자신의 일지에 손을 뻗어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인디언들을 변화시키려 미대륙으로 갔다. 그러나 오! 누가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이가, 무엇이, 나를 장난질하는 악한마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의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을 믿었노라고... 그리고 죽음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나

자신을 믿었던 나의 영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⁵⁾” 말하지 못하고, 폭풍우 속에서 “만약 이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찌지?”라는 염려를 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번 길은 폭풍이 존의 생명과 사무엘 호를 괴롭히지 않았고, 배는 항해를 이어나갔다. 때문에 존은 계속 그의 일기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었다.

조지아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 영국을 떠난 지 약 2년 4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미대륙으로 떠난 나는 왜 성화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난 미치지 않았습시다. 나는 진리와 진지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 꿈꾸는 자들 중 일부가 깨어나서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때 나는 지구의 끝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⁶⁾”는 것을 배웠다. 나의 온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하여?”), 결과적으로 “사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나의 삶을 통해 보았다. 나의 삶이 소외당한 이유는 내가 “진노의 자식⁸⁾”이기 때문이었고, “지옥의 상속자”였기 때문이었다.

존은 배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⁷⁾와 1738년 새해를 기뻐하지 않았다. 바다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존은 잉글랜드로 돌아가는 항해의 끝이 두려웠다. 그곳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의 그가 교역자 또는 부사제로 받아들여지겠는가? 그는 이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다.

5) 빌립보서 1:21

6) 로마서 3:23

7) 시편 14:1, 시편 53:1

8) 에베소서 2:3

9장. 믿음으로 살리라

1738년 2월 1일 존은 영국 켄트(Kent)주 딜(Deal)도시에 상륙하였다. 캐롤라이나 남부 포트 로열에서 배를 탔을 때 보다, 그는 정신이 더 산란하고 우울했다. 한 때 해변을 같이 거닐던 옥스포드 친구들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기에 친구 제임스 휴튼(James Hutton)과 함께 머물렀던 런던으로 향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존은 소수만 있었던 작은 규모의 메소디스트의 모임이 영국전역에 생겨난 것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존이 조지아로 떠난 2년 동안 홀리클럽의 회원들은 영국 전역의 사제로 부임을 받았고, 그 곳에서 이 모임의 이념을 전파했다. 비록 그렇다 해도, 존은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홀리클럽의 전파소식을 많이 기뻐하지 않았다.

런던에 도착한 지 6일이 지났을 때, 존은 피터 뵐러(Peter Bohler)를 만났다. 피터는 조지아 사바나로 가는 길에 만났던 모라비안교도였고 그는 몇 일 지낼 곳이 필요했다. 피터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존은 제한된 독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게 통역을 해주고 런던에 있는 동안 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피터는 존이 그를 도와 준 것보다 더 많이 존을 도와줄 수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존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었고, 어떻게 사람이 지옥에서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참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은 자신의 최고의 의견들을 내놓았지만 피터는 고개를 저었다.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그런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존은 피터의 말에 동의할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언쟁을 벌일 때도 있었다.

결국 피터와 존은 옥스포드에 있는 찰스 웨슬리를 방문하였다. 찰스는 피터에게 자세한 질문을 했고,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받아드렸으며, 이러한 찰스의 모습으로 존은 마음이 불편했다. 사실 존은 모라비안교도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받아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피터와 대화를 나누고, 그와 기도를 해도, 존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존이 결국 피터에게 설교하는 모든 일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고, 피터는 그에게 놀라운 답변을 했다. “설교하세요. 형제여, 설교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포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존은 절실하게 물었다.

“믿음을 가질 때 까지 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존은 피터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지역교도소의 사형수를 방문했다. 존은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동안 마음의 혼란을 느꼈다. 존은 사형 선고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사실 이러한 즉각적인 변화는 존이 이전에 가르치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쨌든 사람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만약 사형수가 회심했다고 해도, 그는 다음날 교수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보여줄 시간이나 자유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계속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복음을 사형수에게 전하고, 그 두 사람은 회심을 하고 난 후에 특정한 “선한 일”을 보여주지 못할 사람마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위대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존은 교도소를 나오면서, 비록 그가 기다렸던 신앙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지만,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1738년 5월 24일 존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다른 이들과 같이 안정을 찾았고, 존은 자신의 일상을 일기에 기록했다.

나는 계속해서 5월 24일수요일까지 낮선 무관심, 어리석음, 냉담, 그리고 심하게 거둬들이며 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알아보았다. 기억하기로는 오늘 아침 5시쯤에 성경책을 펴서 이런 말씀을 보았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⁹⁾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다시 성경을 읽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후에 나는 부탁받은 게 있어 성 베드로 성당에 갔고, 그곳에서 성가를 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오 주여, 주여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오 당신의 귀를 열어 나의 불평을 들어주소서. 만약 당신이 잘못된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토록 메말라 죽게 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이것을 견디겠나이까, 당신에게 자비가 있으므로, 나는 두려워하나이다. 오 이스라엘이여 주를 신뢰하라. 그가 있는 곳에 자비가 있고, 그에게는 많은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로부터 구

9) 베드로후서 4:1

속하리라.”

그 다음날 존의 영성일기는 계속되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스케이트 거리(Aldersgate-Street)에 있는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이 루터(Luther)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이었다. 그는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 때 나의 마음은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느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심지어 나의소유도 없애셨다.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범¹⁰⁾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믿어 온 오랜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존은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말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제임스 휴턴의 어머니는 심지어 사무엘 웨슬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5월 28일 일요일 이후에 보이는 존의 행동이 때문에 말이지. 너도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할게다... 5일전에는 존이 집에 찾아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무엘은 동생이 퍼트리느 이상한 말들이 반갑지 않았기에 존에게 날카로운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만약 네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너는 그동안 엄청난 위선자였다는 얘기로구나. 너는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게끔 했으니 말이다.”

존은 곧 믿음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신학적 입장을 많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교회나 런던지역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 당했고, 그와 대화를 한 친구들은 모욕을 당했다. 올더스케이트에서 경험을 한 후, 한 달

10) 로마서 8:2

이 채 지나지 않아, 존은 공격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 지 결정하기 위해 어딘가 갈 곳이 필요했다. 얼마 되지 않아, 존은 목적지를 색소니에 있는 헤른후트(Herrnhut, in Saxony)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친첸도르프(Count Zinzendorf) 백작과 모라비아안교도들이있는 곳이었다.

1738년 6월 7일 존은 샐리스버리(Salisbury)에 누이와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수잔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독일로 가게 되었는지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수잔나는 아들에게 축복해주길 거부했다. 대신에 그녀는 존에게 그의 새로운 관점이 “과장적이고 광적”이라고 말했다.

그대로 존은 그의 신실한 친구 벤자민 잉험과 함께 색소니로 떠났다. 2주의 혹독한 여정이 끝나고, 존과 벤자민은 마리엔본(Marienborn)에있는 모라비아안 공동체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 친첸도르프 백작이 머무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존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몸이 많이 아파있는 상태여서 백작과 간단화대화만을 나누었다. 비록 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존은 모라비아안 공동체에서 본 작은 일들에 깊은 감명을 느꼈다. 그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마리엔본에 있는 가족들은 대략 9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현재 백작이 마련한 큰집에서 살고 있다. 이 집은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들은 약 3마일 떨어진 곳, 과일나무가 있는 언덕에 또 다른 건물을 짓고 있다. “오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1)”

다음 날 존의 건강은 좋아졌고 그는 친첸도르프 백작과 함께 친구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짧은 여행을 나섰다. 존은 독일인들의 관습과 저녁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 주고 받는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다.

마리엔본에서 존은 공동체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고, 많은 모라비아안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의 교훈과 좋아 보이는 예절을 발견하고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11) 시편 133:1

나는 마리엔본에서 일 마일 떨어진 에커스하우젠(Eckershausen)에서 형제 한 명과 함께 지냈다. 나는 보통 그곳에서 낮 시간을 보냈는데, 주로 라틴어나 영어를 하는 사람과 대화를 했다. 연습이 부족한 탓에 독일어로 순조로운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났다. 믿음의 힘으로 살고 있는 증인들을 말이다. 이들 각자는 마음에 드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 적뿐만 아니라 외적인 죄로 부터 구원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 위에 내려진 성령님의 변치 않는 증거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8월 6일 주일날, 존은 모라비아교도의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 헤른후트에 있었다. 그는 그들의 예배에서 신선한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헤른후트에서 저녁예배가 끝나고, 모든 미혼의 남성들은 그들의 품습대로 조용히 마을 주변을 걸어 다니며 악기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 둥그렇게 둘러앉아 함께 기도를 했다. 그 다음 큰 광장으로 돌아와 11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칭송했다.

존은 또한 어느 한 모라비아 소년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마주친 단순한 믿음에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땅에 묻혔다. 묘지는(그들은 이 땅을 가테스 엑커(Gottes Acker)라고 불렀고, 이는 하나님의 들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마을에서 몇 백 야드 떨어진 곳, 작은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곳에는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을 위한 구역이 따로 있었고,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과 미혼 여성,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를 위한 구역도 있었다. 시신은 예배당에서 옮겨졌고, 그들 모두는 걸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아이의 시신이 묻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서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첫 줄과 둘째 줄에, 남자 아이들은 셋째 줄, 여자아이와 여자들은 넷째 줄에 섰다. 사제가 짧은 기도를 하고 (내 생각에는 읽은 것 같다.)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축도로 마치자, 사람들은 다시 노래를 불렀다.

무덤을 바라보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나는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말하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소.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의 영혼을 그의 곁으로 데려가 주셨으니 말ियो. 나의 바람대로 아이의 시신이 이 거룩한 땅에 묻힌 걸 보았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살아나, 나의 아들과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모든 것들이 존에게 인상적이었고 존은 그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썼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그를 두렵게 했다. 그 중 하나가 친첸도르프 백작이 피터 벨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존은 여전히 믿음에 관한 많은 궁금증이 있어보였기 때문에 모라비안교도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함께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가 “저주를 먹고 마신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들은 존의 친구인 벤자민이 그들의 식탁에 오는 것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은 존에게 큰 모욕이었다.

존은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고, 가끔은 다양한 모라비안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가 색소니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을 때, 존은 “나는 이곳에서 기쁘게 내 삶을 보냈지만, 주님은 나를 그의 다른 포도밭에서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 오 언젠가 이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을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¹²⁾”

그 후 몇 달 동안, 존은 그에게 허락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설교를 했다. 그의 주요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다. 한 교회에서 그의 설교를 두 번 환영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성공회 관계자들은 특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이상하고 열광적인 행동들”을 우려했다.

그러나 존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신다는 발상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는 영적인 꿈, 계시 그리고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존은 자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을 성 토마스 노역장(St.Thomas Workhouse)에서 설교로 하는데, 어느 젊은 여인이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존의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운음을 비틀며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했다.” 존은 설교를 멈추고 그 여인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 그

12) 하박국 2:14

너는 즉시 조용해졌고, 이로 인해 회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연말이 되었을 때, 존은 겨우 세네 군데의 성공회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야 할 지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관계 없이 메소디스트들은 존을 창시자 그리고 비공식적인 지도자로 바라보았다. 각 지역에 퍼져있는 이 소수의 작은 모임은 옥스포드에서 시작한 홀리클럽의 후예들로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존은 페터레인(Fetter Lane)에서 만난 39명의 메소디스트들과 1738년 새해맞이모임을 하기로 정했다. 이 무리는 저녁식사로 빵과 물을 준비하고 철야기도회를 계획했다. 예전 홀리클럽의 회원이었던 조지 화이트필드, 찰스 웨슬리, 벤자민 잉험, 존의 매형인 웨스틀리 홀(Westley Hall)등 7명이 그 모임을 위해 왔다. 그리고 약 60명의 뜨거운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에 존은 이 모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아침 약 3시쯤에,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했고, 많은 이들이 엄청난 기쁨으로 인하여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외심과 놀라움에서 조금 안정을 찾자, 갑자기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날 철야기도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웨슬리가 아니라 조지 화이트필드였다. 그 다음날 조지는 그 일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계속 금식상태로 새벽 세시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3개월 뒤, 조지가 예언한 것을 존이 경험하게 되었다.

10장. 세계는 나의 교구

1739년이 시작되면서, 존 웨슬리에게 교회들은 문을 매섭게 닫아버렸고, 열정의 설교가로 변한 조지 화이트필드도 그와 같이 배척을 당했다. 결국 페터레인에서 함께 했던 메소디스트 무리의 7명의 회원들은 조지가 브리스톨(Bristol)로 떠나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올 것을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열정의 설교가로 알려진 조지의 명성은 이미 자자했고, 브리스톨의 성직자들마저 자신의 성도들 앞에서 그가 설교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그들을 좌절 시켰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다. 조지는 선포했다. “이것은 어찌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산을 강대상으로 삼고, 하늘을 공명판으로 삼아, 그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거절당했을 때에 자신의 종들을 높은 곳과 산울타리로 보내셨다.” 그래서 조지는 높은 곳과 산울타리,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브리스톨 위에 있는 킹스우드(Kingswood)의 탄전으로 갔다.

킹스우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 영국 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주(state)가 허가한 교회들을 뜻했으며, 다른 새로운 교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이 통과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영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광산업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로 인해 광부들이 출석할 수 있는 지역에는 설립된 성공회교회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에서 교회에 나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 광부들은 투박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그들을 전도하려는 성직자들의 노력은 항상 무산되었다. 하지만 직설적인 설교 스타일의 조지 화이트필드가 그들 앞에 서고 난 후, 광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야외집회에서 조지의 설교를 듣기위해 무리지어 모였고, 가끔은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다!

존은 조지에게 편지로 킹스우드에서 생긴 일을 처음 들었다. 1739년 3월에 쓰여진 이 편지는 그 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킹스우드에 있는 광부들에게 영광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조지는 편지의 끝을 이렇게 맺으면서 존을 그곳으로 초대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곳에 와서 내가 씨를 뿌린 자들에게 물을 주길 바라네.”

3주 뒤에 조지가 보낸 두 번째 편지는 좀 더 직설적인 초대의 글이 있었다. “만약 페터레인에서 함께한 메소디스트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곳

에 와서 사역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동의한다면, 다음 주 말일까지 브리스톨에 올 준비를 하게.”

존은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마음이 무거웠다. 조지는 심각하게 그가 브리스톨로 올 것을 제안하며, 야외에서 설교하고, 무지한광부들을 복음의 방법으로 교육시킬 것을 권했다. 사실 존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의 동생 찰스는 더욱더 이 제안을 반대했다.

그러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모라비안교도의 전통에 따라 존은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말씀구절을 찾아 읽었다. “인자(人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¹³⁾” 존과 찰스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페터레인 모임에 도움을 청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비 뽑는 것을 제안했고, 존은 동의했다. 그는 모자에 있는 쪽지 하나를 뽑았고, 그것에는 “가라.”라고 적혀있었다. 존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브리스톨을 향해 떠났다.

존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가 염려했던 것 보다 더 나빴다. 당시 조지는 구기장(bowling green)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곳은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수 천명의 사람들로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설교자를 좀 더 잘 보기위해 나무위에 올라앉거나 지붕에 올라앉았고, 존은 이들의 질서 없는 광경들이 몹서리치게 싫었다.

조지는 존을 반가워하며 자신은 조지아 식민지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그는 설교의 책임을 존에게 넘기고, 북아메리카로 가기 전 런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존은 바뀌어버린 상황들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는 야외에서 설교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대신에 조지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브리스톨 지역의 메소디스트의 소그룹 모임을 데리고 실내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메소디스트들의 예배실은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무게로 인해 한 층이 무너졌을 때, 존은 야외에서 설교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일 월요일은 존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오후 3시 30분, 존은 광채데미위를 터벅터벅 걸으며 설교를 하기 위해 벽돌공장으로 갔다. 그는 야외설교가 걱정

13) 에스겔 24:16

되었지만, 그래도 이 일에 대해 성공회 사제로서 단정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존은 일을 막 마치고 온 광부들이 자신의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한 기도를 했다.

4시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큰 숨을 들이 마시고는 야외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설교말씀으로 누가복음을 선택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¹⁴⁾”

존이 설교를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숫자는 3천명에 이르렀다. 존은 갈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설교가 끝났을 때, 그는 군중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의 숙소로 걸어갔다.

그날 밤 존은 혼자 방에 앉아 그가 한 일들을 궁금해 했다. 그는 자신이 조지 와이트필드와 같은 역동적인 설교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면 충분한가?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나 자신에게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은 다음날 존에게 찾아왔다. 존은 찬송을 부르며 아침을 깨웠고, 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과정에 그가 정확하게 있음을 느꼈다. 늦은 오후, 존은 조지 와이트필드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브리스톨 외곽에 있는 또 다른 광산 지역인 하남 산(Hannam Mount)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우선 존은 오전 7시, 니콜라스 거리(Nicholas Street)의 메소디스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찍 인 시간에도 불구하고,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타났다. 그리고 그 날 오후, 존은 마침내 하남 산에 도착했고, 약 1500명의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그의 설교를 들었다. 이후 밤에는 존이 킹스우드와 로즈그린(Rose Green)으로 걸어 내려왔고, 그곳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한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존은 자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 수를 추정해 보았고, 그 숫자는 5천 명이 넘었다! 그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정규 성공회예배에 가본 적이 없었고, 교회에 나갔다고 해도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14) 누가복음 4:18-19

메소디스트의 더 많은 모임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 중 일부는, 설교가 전해지는 동안, 그들의 죄를 깨달아 소리를 지르며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다른 이들은 소리를 내어 웃거나 다른 방언, 또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없었다. 존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난 이 실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4월21일. 위버스 홀(Weaver's Hall)에서 젊은 한 남자가 갑자기 온 몸을 심하게 떨었고 잠시 후 바닥으로 쓰러졌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한 평안과 기쁨으로 일으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불렀다.

5월21일. 저녁에 나는 니콜라스 거리(Nicholas Street)에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이의 울음으로 설교는 거의 중단되었는데, 그는 마음에 강한 찢림을 느끼고는 용서와 평화를 구하며 심하게 신음했다... 또 다른 이는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그는 우리와 반대되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과 가까이에 있었다. 그가 이러한 광경에서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 동안, 그 옆에 있던 작은 소년이 같은 방법으로 사로잡혀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뒤에 있던 청년도 그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바닥으로 맥없이 주저앉았고, 잠시 뒤에 소리를 지르며 땅에 몸을 부딪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6명의 남자들이 간신히 그를 멈출 수 있었다.

6월22일. 집회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힘없이 쓰러졌고, 곧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람이 쓰러졌다. 한 시간 반 동안 5명의 사람이 쓰러졌으며, 그들은 대부분 극도의 피로움을 겪었다. 그들의 곤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응답을 주셨다.

비록 이러한 현상들은 성공회신학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일반적인교회의 관행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존은 신경 쓰지 않았다. 조지와이트필드의 도움으로 그는 일생동안 해야 할 일을 발견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 백 만의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복음을 듣기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영국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존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의 형 사무엘은 존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의 집회에서 동반 된 이상한 감정폭발의 현상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고, 존은 이렇게 답장을 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악인을 개혁하고, 고결한 자를 확인하라고 명하고 계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교구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그 사람들의 명령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나의 특별한 사명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야...그리고 난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생각해.”

비록 메소디스트들이 영국 국교회내의 하나의 단체로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들은 함께 모여 더 많은 시간동안 서로의 영적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했다. 브리스톨에있는 두 개의 주요 메소디스트 그룹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만의 예배당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곳을 단순하게 “우리의 방(Our room)”으로 불렀다. 그러다 그들이 건물매입을 위한 돈이 모자랐을 때, 존이 나서서 대금 지불을 도왔고, 그곳의 이름을 “새로운 방(The New Room)”으로 변경했다.

런던에 있는 페터레인 단체(the Fetter Lane Society)에 문제가 발생했다. 단체의 회원들은 존이 그랬던 것처럼, 모라비안교의 가르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 엘세이스(Alsace) 출신인 설교가 필립 헨리 몰더(Philipp Henry Molther)가 런던에 도착해 페터레인의 집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존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때, 피터 뵐러는 그에게 “믿음이 생길 때 까지 설교하라.”고 훈계했다. 그러나 몰더는 페터레인 회원들에게 그 반대의 설교를 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교리를 “고요함(Stillness)”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단어 그대로였다. 그는 페터레인 메소디스트에게 구원 받았다고 백 퍼센트의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까지 교회를 가셔도 안 되고, 금식이나 기도, 성경을 읽거나 어떠한 선한 사역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했다.

존이 브리스톨에 들리고 나서 페터레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임의 변화를 보고 섬뜩한 충격을 받았다. 페터레인 회원의 10명중 9명이 불참했는데, 그들은 고요의 교리를 깨는 것이 두려워 예배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단체가 했던 모든 자선 사업은 멈추었고, 아무도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격을 받은 존은 이러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몰더는 설득력이 강한 설교자였고, 페터레인의 많은 회원들은 존의 말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존이 단독으로 특별회의를 열어 탄원하고, 몰더에게 공개항의장을 썼기 때문이었다. 1739년 6월이 되자 존은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느꼈다. 그는 페터레인 단체의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했다. 다시 그들과 논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존은 말했다. “저는 이 문서로 여러분들께 몇 번이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서 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법적 오류로 더욱 더 혼란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존이 마지막으로 예배당에서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25명의남자들과 48명의 여자들이 그와 함께 떠났다. 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신도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영적고향(Spiritual home)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738년 11월로 돌아가, 존은 런던의 무어필드(Moorfields) 위쪽에 있는 오래된 로얄 주조공장(Royal Foundry)에서 두 번 설교를 했었다. 이 주조공장에서 한 때 영국 군대를 위한 대포를 만들었는데, 1716년 폭발로 진입이 금지되었고, 작업장은 울위치(Woolwich)로 이전되었다. 존이 이 곳에서 설교한 각 집회마다 거의 6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몰려왔는데, 한 번의 집회가 끝난 후 영향력 있는 두 명의 남자가 와서는 그 오래된 주조공장을 메소디스트를 위한 예배당부지로 구입하라고 장려했었다.

당시 존에게 생긴 상황을 고려할 때, 그는 이 계획을 수행할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동산 임대를 계획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터레인 단체와 런던에 있는 다른 메소디스트 단체 출신의 사람들은 폐쇄건물을 예배당과 회의실로 바꾸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그들은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갖게 되었고, 그 예배당은 한 쪽은 남자를 위한, 다른 한 쪽은 여자를 위한 자리로 나뉘어 있었다. 또한 그 개조된 건물에는 300명이 앉을 수 있는 회의실이 있었고, 2층에는 존이 지낼 수 있는 작은 사택이 있었다.

1739년 가을이 되자, 존은 런던과 브리스톨에있는 메소디스트 단체에 시간을 나누어 써야 했기에 그 어느 때 보다는 바빴다.

그 해 영국으로 상륙한 겨울은 몇 년 중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템즈강(Thames River)은 단단히 얼어붙었고, 북해(North Sea)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뱃속까지 추울

정도였다. 그리고 차가운 비는 영국 전체를 흠뻑 적셨다. 그러나 존은 날씨와 상관없이 옥외에서 힘찬 설교를 했다. 종종 그는 어둠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해 겨울은 오후 4시 30분이 지나면 전 지역이 밤처럼 어두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추위도, 어둠도 복음을 찾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지는 못했다. 존의 집회가 브래드포드(Bradford)에서 있었을 때, 쏟아지는 거센 폭우에도 불구하고, 만 명의 사람들이 존의 설교를 듣기위해 옥외에 모였다.

이 기간 동안, 찰스 웨슬리는 이 모임에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다. 찬송가의 목적은 메소디스트의 관점을 교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찰스는 외기 쉬운 멜로디와 신중하게 쓰인 가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뚜렷이 남아,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했다.

1739년11월은 존 웨슬리 형제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왔다. 사무엘 웨슬리가 49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다. 그는 밤중에 병이 났고, 다음 날 아침에 사망했다. 존은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고, 사무엘이 자신과 찰스가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믿은 채 사망한 사실이 괴로웠다. 그 기간은 존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하던 일을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존은 계속해서 강행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15,000명의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는 등 수 많은 멋진 일들을 경험했다.

낡은 주조공장을 개조하는 일이 다 끝나자, 존은 위층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좀 더 마음을 열어 준 그의 어머니, 수잔나와 함께 살기로 하고 어머니를 모셔왔다. 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메소디스트들은 브리스톨과 런던에 영구기지가 생겼다. 그리고 존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영국 전역의 다른 도시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11장. 확장 사역

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런던에서 한번 모임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740년이 시작되던 때, 존의 삶에 대소동이 일었다. 당시 조지아에서 돌아온 조지 화이트필드와 존 사이에 있었던 이견이 중대한 신학적 충돌이 되어버린 것이다. 두 사람은 예정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는지, 또는 각 사람이 구원에 대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오래된 문제에 의견이 갈리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 존은 자신이 믿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조지에게 이렇게 썼다. “끔찍한 법령인 예정설에는 신성모독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네. 나는 여기에 마음을 굳혔고, 예정설에 관한 모든 주장들에 문제를 제기하네. 자네는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성경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세. 결정 보류! 난 그렇게 할 수 없네.”

찰스 웨슬리 또한 이 싸움에 동참했는데, 그는 찬송가의 작사가로서 문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존의 입장이 납득되도록 도왔다. 사실 찰스의 찬송가는 존의 믿음을 널리 퍼뜨리는 인기 있는 도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을 가졌다. 당시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기에, 찬송가는 부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전하고 그것을 기억에 남기는 강력한 방법이었다.

*주여, 자유의 다른 이들을 내버려두심으로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가두시겠나이까
그리고 나를 찾으신 그 은혜를
모든 죄인들이 증명하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도망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파멸하소서.
오 주여, 당신의 종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지독한 법에 대하여 울부짖나이다.*

존과 조지의 의견 불일치로 런던의 감독인 에드먼드 깁슨(Edmund Gibson)은 두 명의 성공회 성직자들이 복잡한 신학 문제에 대한 이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에 분개했다. 그는 존과 조지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했으나, 둘 다 나타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는 단순한 감독(Bishop)보다 더 높은 능력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했으며, 자신을 감독의 권위 아래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깁슨 감독 또한 존과 함께 평신도 설교자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을 것이다. 영국 국교회는 평신도 설교자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단합이 되어있었다. 그 규정 중 하나는 성직자로 임명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승인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성공회교리에 대한 서약을 해야 했다. 때문에 석공이나, 편자공, 또는 농부와 같은 일반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에 관해 설교 할 수 없었고, 평신도 설교자에 대한 생각은 일반 성공회교도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슈였다. 그러나 존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것을 장려했고, 이것은 종교적 갈등의 문제가 되었다.

이 사안은 그가 브리스톨에 있을 때 처음 시작되었다. 그는 런던에서 평신도인 토마스 맥스웰(Thomas Maxwell)이 주조공장에서 메소디스트 예배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은 존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토마스 와 대면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러나 그가 주조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이미 토마스를 만나고 있었고 그의 생각을 듣고 있었다. 수잔이 막 도착한 존 웨슬리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토마스의 설교를 염려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조언을 했다. “존, 저 청년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아라. 그도 너처럼 진실로 설교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다.”

그녀의 말은 존의 편견을 멈추게 했고, 그는 모임의 뒤편으로 살짝 빠져 앉아, 토마스 와 대면하기 전에 설교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존을 놀라게 했다. 비록 토마스 맥스웰은 대학도 못나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호소력과 감동이 있었다. 처음으로 하나님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존의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다. 혼돈의 상태로 모임에서 벗어나, 존은 수잔나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메소디스트들은 처음으로 사회프로그램을 1740년에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소작농들이 마을과 도시로 옮겨왔고, 영국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존은 메소디스트들이 가난한 이들을 충분히 돕지 못하는 것에 문제를 느꼈다. 그는 주조공장의 일부를 작은 작업장으로 바꾸었고, 12명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목화실을 뽑아 방직하는 기술을 가르쳐 그들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마을과 도시의 가난한 이들과 직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들에게 할 일이 없자, 대다수의 가난한 이들은 한데 모여 떠돌아 다녔고, 흠치고 싸우며 그들 자신을 골칫거리로 만들었다. 그들은 특히 길가에 다니는 시민들을 괴롭히길 좋아했고, 옥외에서 예배모임을 갖는 메소디스트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이러한 패거리들은 메소디스트의 주변에 모여 야유와 방해를 했다. 가끔 그들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기도 했다. 한 번은 글루스터셔(Gloucestershire)의 햄프톤(Hampton)에서, 폭력배 한 무리가 거리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메소디스트들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돼지여물을 쏟아 부었다.

존은 이러한 일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끔 말씀을 전할 때 난동을 부리는 폭도들로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능력 있고, 설득력 있는 언변가였기에 어떠한 상황도 그의 설교를 방해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존이 브리스톨 근처에 있는 펜스포드(Pensford)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폭도 한 무리가 그 예배모임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수소 한 마리를 데려와 사람들을 겁주려고 했다. 그들은 소가 군중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힐 것이라고 기대하며, 소를 풀어놓았다. 그러나 소는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소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 지 않고 주변만을 빙빙 돌다 스스로 진이 빠져 멈췄다. 그리고 그동안 존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갔다.

결국 속이 상한 폭도들은 지친 수소를 군중들 사이에 잡아넣었다. 그들은 소를 끌어 존이 설교하고 있는 단상에 까지 갔다. 그리고 존을 공격하도록 소를 풀어놓았다. 소는 다시 한 번 그들을 돕지 않았고, 존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큰소리로 헝헝거리기만 했다. 그 때 존은 수소보다 더 화나있는 폭도들을 보았고, 강단에서 내려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강단을 빠져 나오자마자, 폭도들은 앞으로 몰려들어왔고, 너

무 화가 난 나머지 단상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었다.

이런 난동이 심해질 때면, 가끔 지역당국에서 제제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메소디스트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가끔 그들을 반대하는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이 각 지역의 메소디스트 모임들이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폭동은 몇 년간 계속되었다.

1740년 10월은 충격적인 사망소식을 가져왔다. 유명한 메소디스트 윌리엄 슈어드(William Seward)는 조지ワイト필드를 도우다 3월에 미대륙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처럼 빈곤층 폭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한 때, 그는 폭도들에게 썩은 계란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 후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계에 있는 헤이온와이(Hey-on-Wye)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는 난동 속에서 머리를 맞았고, 두 개골 파열로 곧 사망하였다. 윌리엄슈어드는 메소디스트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메소디스트들은 거리에 나갔다. 연말이 되었을 때, 존은 20명의 평신도 설교자를 편성하고 브리스톨과 런던사이에 파송하여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했다. 그들을 보내기 전, 존은 평신도 설교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1. 근면하십시오. 한 순간도 일을 쉬지 마십시오.
2. 진지하십시오. 농담 같은 모든 경솔한 일들을 피하십시오.
3. 여자와의 대화를 삼가 하십시오.
4. 믿음의 형제들과 논의 없이는 결혼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5. 악한 것은 믿지 마십시오.
6. 악한 것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7. 악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십시오.
8. 신사처럼 허세를 부리며 행동하지 마십시오.
9. 무엇보다 죄를 부끄러워하십시오. 나무를 파는 일이나, 물을 길어오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10. 시간을 엄수하십시오. 모든 것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십시오.

11. 여러 번 설교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여러 교구의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12.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하지 말고, 복음의 자녀로서 행하십시오.

평신도 설교자들은 이 규칙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곳에 방문 할 때마다 환영받지 못했다. 특히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면 더욱 반가워하지 않았다. 평신도 설교자 중 한 명인 존 넬슨(John Nelson)은 직업상 석공일을 하였는데, 그가 옥외에서 설교할 당시 폭도에게 습격을 당해 초주검이 되었다.

1741년, 이런 문제들은 조금 안정이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존의 막내 동생인 크지아 웨슬리가 하늘로 갔다. 35살의 젊은 나이였기에 동생의 사망은 가혹한 비보였다. 특히 찰스 웨슬리는 동생의 죽음에 절망했고, 수잔나 웨슬리 또한 딸의 죽음을 받아드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계속되었다. 1742년이 시작 되었을때, 존은 메소디스트단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이일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였다. 브리스톨에 있는 메소디스트들은 예배당 건축비를 모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무리 중에 부유한 사람이었던, 포이 선장은(Captian Foy) 모든 메소디스트 회원들이 일주일에 1페니씩 지불하면 대출금 모두를 갚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단체의 회원을 12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한 사람을 뽑아 돈을 걷는 책임을 맡겼다. 이 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포이 선장은 형편이 어려운 11명의 회원들과 같은 그룹이 되어 그들이 돈을 내지 못할 때, 그가 대신 내주었다.

그 계획은 즉각적인 성공을 이뤘다. 그리고 작은 그룹들은 매주 모여 그들의 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책망했다.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존은 이러한 소그룹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메소디스트가 놓친 일부분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그가 설교했던 모든 곳에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행티켓을 발행할 수 있는 소그룹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이 메소디스트 선행티켓은 2개월간 유효했고, 1실링(12펜스)를 회비로 낸 회원들에게 발행되었다. 소그룹모임에 3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시에는 다음 달 티켓을 발행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메소디스트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회원들을 관리하기에 간단하고 쉬운 이 시스템은 존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임무인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진 하도록 도왔다.

2개월 뒤에 존은 헌팅던 여사(Lady Huntingdon)를 만났다. 그녀는 존 웨슬리와 조지 화이트필드의 경제적 후원자로, 존에게 복잡하지 않은 복음 메시지를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광부들에게도 들려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 브리스톨과 런던에 있는 메소디스트 그룹들은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존은 그녀의 조언대로 북부로 가기로 했다. 그는 헌팅던 여사의 수종인 존 테일러(John Taylor)를 데려갔고, 테일러는 평신도 설교자였다. 이 두 남자는 북부의 뉴캐슬(Newcastle)로 말을 타고 올라가 1742년 3월에 도착했다.

그들은 뉴캐슬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사람들을 모을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존에게 쉬운 일이었다. 존은 샌드게이트(Sandgate)언덕의 빈민가로 발을 옮겼다. 그리고 그와 존 테일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려왔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구경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순식간에 수 백 명의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무엇인지 서로 보려고 찾아왔다. 그때 존은 설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모여 있는 무리에게 다음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¹⁵⁾”

설교말미에 존 웨슬리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들으러 저녁에 다시 오라고 초청했고, 저녁집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존은 샌드게이트에 정기 복음집회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2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남자와 여자들 중에서 핵심그룹을 끌어 모아 소그룹으로 편성했다. 존 웨슬리와 존 테일러는 쉬지 않고 뉴캐슬 메소디스트들을 연합된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일로 그들은 고아원을 착공했다. 그것은 회원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빈민가의 극빈자와 어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다. 이 후에 두 설교자는 새로운 메소디스트들의 성장을 기뻐하며, 남부로 다시 돌아갔다.

존이 어린 시절 고향인 앵위스를 방문한 지도 7년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에 앵위스에 잠시 들리기로 했다. 존은 앵위스의 지역숙소에서 지냈고,

15) 이사야 53:5

우연히 그곳에서 오래전에 웨슬리가의 하인이었던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존을 다시 보게 되어 매우 반가워했고, 돌아오는 주일날 존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존은 하고 싶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메소디스트의 사상을 문전박대 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러나 그 여인의 따뜻한 환영으로 담대해진 존은 목사관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목사, 롬리(Romley)와 대화를 했다. 롬리 목사는 존을 냉대하며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존은 그의 모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적어도 저녁기도회에는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인트 앤드류 교회로 가는 길에 존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교회는 존에게 많은 기억들이 있는 곳이었다. 존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어머니와 형제, 누이들과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그의 형 사무엘과 누이 메리와 크지아는 죽고 없었다. 존은 아버지가 런던으로 떠났을 당시를 회상했고, 당시 그의 어머니가 비공식적인 예배모임을 목사관 부엌에서 열어, 인도로 간 첫 번째 유럽인 선교사 이야기를 크게 읽어주는 모습을 기억했다. 그 모임은 세인트 앤드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애플스와 펜스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어머니의 모임은 당시 전 지역에 퍼져있는 메소디스트의 선구적 모델이 되었다.

롬리 목사는 기도회에서 성경을 읽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¹⁶⁾” 그는 존을 바로 쳐다보며 “광적으로” 사악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가 예전 교구사제의 급진적인 아들과 연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였음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성도들은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묘역에 서성이며,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집에 가고 싶지 않아했다. 이 광경을 보던 존 테일러가 말했다.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6시에 이 교회묘역에서 말씀을 전합시다.”

군중들 사이에서 흥분의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존은 많은 청중들이 그 시간에 올 것을 알았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6시가 되자 존은 아버지의 묘석에 올라서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인파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천국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16) 데살로니가전서 5:19

존이 설교를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어떻게 구원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지에 대해 듣고 싶어 했다.

존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마음이 매우 기뻐고, 애플워스에 한 주 더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다음 토요일, 존은 그날의 야외 설교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율법의 의(Righteousness)와 믿음의 의에 대하여 설교를 했다. 내가 말을 하는 동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고, 나머지 무리에서는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믿음의 의를 구하는 죄인들의 울부짖음이었으며, 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어났고,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자신의 영혼을 갈망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에서 신사 한 분을 보았는데, 그 분은 어느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가 최근 30년 동안 공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마치 동상처럼 가만히 서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불쑥 이런 질문을 했다. “성도님,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낮고 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충분히 죄인이지요.” 그 신사 분은 아내와 함께 온 하인을 뺀히 쳐다보았다. 그들 모두는 눈물을 흘렸고, 신사와 함께 마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다.

1742년6월 13일 일요일, 존은 애플워스 교회묘역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6시, 나는 모든 지역에서 몰려온 무수의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초반부를 전했다. 나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헤어질 줄을 몰랐다. 오, 열매가 즉시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의 수고가 헛되었다고 말하는 이는 없으리라! 아버지는 이곳에서 거의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 하지만 그의 수고에는 열매가 거의 없었다. 나도 현재 이들에게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 아버지나 내가 어떠한 수고를 했을지라도 이 마을에서는 부족했다. 그러나 그 씨가 아주 오래전에 뿌려졌으므로 지금은 확산되고, 회개를 낳고, 죄사함이 있는 것이다.

존 웨슬리와 존 테일러는 말을 타고 브리스톨을 경유해 런던으로 갔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 있었다. 그들의 순회사역은 바랐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존은 특히 애플워스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들려드릴 생각으로 신이나 있었다. 존은 어머니가 삶의 많은 부분을 그곳에서 사역하며 보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웨슬리가족의 노력이 영적인 열매를 맺은 소식은 어머니께 큰 감동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존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다시 보려면, 더욱 빠르게 달려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12장. 규칙을 정비하다

1742년 6월 23일 금요일은 존 웨슬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는 이 일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힘겨워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오후 3시쯤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어머니의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계셨고, 말은 하실 수 없었지만, 의식은 있으셨다. 우리가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차분하고 평화로웠다. 어머니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자, 3시에서 4시, 생명줄은 풀리고, 물레방아는 멈춰 섰다. 그리고는 어떠한 몸부림도, 한 숨도, 우는 소리도 없이, 그 영혼은 자유를 찾았다. 우리는 침대에 둘러서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었다. 말을 잃기 전에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얘들아, 내가 자유를 찾게 되거든, 하나님께 시편의 찬송을 올려드려라.”

이틀 후, 존은 어머니의 장례예배를 인도했고, 수잔나 웨슬리는 비국교도들의 묘역(Dissenters' cemetery)에 안치된 부모님 옆에 묻혔다. 이곳은 번힐 필드(Bunhill Fields)에 위치한 곳으로 주조공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8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쯤 거의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고, 나는 나의 어머니가 두 아버지 곁에 잠들 수 있도록 안장시켜드렸다. 그리고 말씀의 한 부분을 전하였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17)” 그날의 예배는 내가 집도한 가장 엄숙한 성회 중에 하나였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의 편에 서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는 어머니를 위하여 시를 지어 묘비에 새겼다.

이곳에 잠든 이 수잔나 웨슬리
사무엘 앤슬리의 막내딸, 가장 마지막으로 잠들었네
확실하고 확고한 소망은 하늘로 올라
그녀의 큰 집을 주장하니
여기에 그리스도인, 그녀의 육신은 누워있으나
그녀의 십자가는 바뀌었네. 먼류관으로...

존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크게 슬퍼하였다. 수잔나는 존의 평생 친구이자 영적 조연자였고, 그는 그 어떤 이들 보다 어머니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떠났고, 존은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했다. 비에 속에서 존은 사역에 몸을 던져 더욱 매진하였다. 언젠가 그는 말을 타고 50마일을 달려가 다섯 번의 설교를 하기도 했다. 그의 계획은 북부의 뉴캐슬, 남부의 브리스톨 그리고 남동부의 런던을 점찍어 그 삼각지대 안에서 메소디스트단체를 강화시키는 것 이었다.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존은 영국 국교회의 많은 성직자들과 맞서야했고, 성공회 성도들도 반대하며 일어섰다. 박해는 존에게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옥외집회를 인

17) 요한계시록 20:11

도할 때면 사람들은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는 두 번이나 돌로 맞고, 배설물 세례를 받기도 했다. 가끔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중을 쉬지 않고 울려, 존이 설교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방해를 하기도 했다.

1743년 1월 존은 말을 타고 뉴캐슬로 가면서,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대로 살지 않는 회원들을 제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뉴캐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메소디스트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회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과 64명의 회원들이 추방당했고, 그들 중에는 주벽이 있는 17명과 독설로 4명, 저주와 욕설로 2명,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을 다 마쳤을 때, 존은 메소디스트를 위한 정식규정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고, 이것으로 각 모임에 있는 회원들이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가 쓴 이 문서는 ‘연합된 공동체의 본질과 계획, 그리고 일반적 규칙(The Nature, Design and General Rules of the United Societies)’이라고 불렸다. 이 문서에서 존은 남자와 여자들이 계속 메소디스트로 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

모든 모임은 12명의 구성원을 갖는다. 그 중 한 명은 지도자의 성격을 띤다. 다음은 그가 해야 할 일들이다.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임의 각 사람을 돌아보아 구성원들이 영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물어볼 것.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책망을 하고, 위로 또는 권면을 할 것. 필요한 상황에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이 기꺼이 내놓는 것들을 받아 놓을 것.

(2) 일주일에 한 번 목사와 단체의 집사를 만나 구성원 중에 아픈 사람이나 바로 견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알리고, 책망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집사에게 지난 주 모임에서 받은 것들을 전달하고 각 자가 기부한 내역서를 보여줄 것.

다음은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로, 이것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계속 증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 모든 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악을 피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일들을 피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는 것, 일을 한다거나 물건을 사고 팔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술 취함 또는 독주를 사거나 파는 행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싸움, 말다툼, 소란을 피우는 것, 형제를 범정에 세우는 것, 악을 악으로, 질책을 질책으로 갚는 행위, 많은 말로 호객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것,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고리대금으로 물건을 주거나 갖는 것, 불법의 이득, 무자비하거나 무익한 대화, 특히 판사나 성직자의 독설, 마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남의 일을 대하는 것, “금으로 치장하거나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유로 변화 받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나 사랑이 아닌 것을 노래하거나 그런 책을 읽는 것, 우유부단함과 불필요한 방종, 땅위에 보물을 쌓아 놓는 일, 대가 없이 물건을 빌리거나 갖는 일.

두 번째, 모든 일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며, 힘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고,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며, 아프거나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거나 돕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의식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공예배, 말씀 읽거나 해석하는 말씀사역, 성만찬, 가정예배와 개인기도, 성경공부, 금식과 금욕을 해야 한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1743년 5월 1일

규정이 정해지면서, 메소디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1743년 여름, 위험한 상황이 잉글랜드 중앙 지역에 있었다. 스윈돈(Swindon)에서, 의용소방대가 옥외 설교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호스로 물을 뿌렸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메소디스트들에게 쓰레기에서 부터 썩은 채소나 계란까지 던졌다. 가을이 되자, 스태퍼드셔(Staffordshire)에서 메소디스트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존은 돌아다니며 궁지에 몰린 단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1743년 10월 20일목요일, 존은 맨체스터(Manchester) 근처에 있는 웬즈버리

(Wednesbury)마을에 도착했고, 시위로 인하여 메소디스트의 8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메소디즘의 창시자인 존이 이 곳에 있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졌다.

존은 웬즈버리에 있는 메소디스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프랜시스 워드(Francis Ward) 회원의 집으로 갔다. 오후 5시쯤, 300명의 성년 무리들이 그곳으로 내려왔고 둘레에 진을 쳤다. 그들은 존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고, 그는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몇 분간 말을 전했다. 그들의 화는 조금 진정되어 보였다. 결국 존과 그 무리의 지도자는 지역 관사에게 같이 가서 존에게 생긴 이 일에 대해말하기로 합의를 봤다.

레인(Mr. Lane)관사는 웬즈버리에서 2마일쯤 떨어진 벤틀리 홀(Bentley-Hall)에 살았다. 존은 그 길을 앞장섰고, 무리들은 뒤를 따랐다. 레인 관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밖은 어두웠고, 그 관사는 밤에 일하지 않았다. 문 앞에서 거절당한 무리들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거절한 관사 때문에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화가 난 그들은 존과 함께 다른 관사를 만나기 위해 월살(Walsal)마을로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지역 반대파들을 만났고 이들은 합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 험악하게 변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존의 목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존은 지역반대파의 사람들이 무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것 같아 두려웠다.

결국 마을 중간에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존은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소?”

“듣기 싫소! 우리가 왜!” 무리들 중 많은 이들이 소리쳤다. “저 생각을 쓰러트립시다. 저 자를 타도하고 죽여 버립시다!”

무리들이 그의 목숨을 요구하였지만, 존은 그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여 무리들에게 말했다. “내가 행한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사람에게 제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존은 계속해서 15분 동안 군중에게 그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말을 맺었다.

그가 말을 하기 위해 올라선 의자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무리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존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당신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따라 오십시오.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선생님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3명의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존은 배를 탈 수 있었고, 마침내 위험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이 4명의 남자들은 존의 앞과 뒤, 양옆으로 섰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조용히 그곳을 탈출했다. 그 남자들은 존이 안전하게 프랜시스 워드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했고, 존은 자정이 지나서 도착했다. 존은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했고, 그 다음날 있는 집회에 초대했다.

이러한 박해를 맞을 때면, 존은 메소디스트에 계속 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용기를 얻어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1744년 2월, 종교적 불관용(religious intolerance)이 영국에 새로운 국면으로 떠올랐다. 프랑스 카톨릭교는 영국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영국 국민들은 이를 두려워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은 모든 카톨릭신자를 런던으로 이주시키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그들이 적군을 원조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 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메소디스트들을 바라보는지 알고 있던 존은 조지 왕을 서둘러 찾아가 메소디스트는 영국의 왕권에 충성을 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그 해 말, 존은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메소디스트 지도자들을 모았다. 1744년 6월 25일 부터 30일까지 메소디스트 지도자들은 런던에 있는 주조공장 예배당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기간 동안 존은 주제로 교회규율과 조직, 모라비안교도들과의 화합, “돕는자”로서의 규칙을 다뤘고, 마지막 주제는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이때까지 존과 찰스 웨슬리는 성직자로 임명받지 않은 사람, 즉 평신도를 설교자로 허가했지만,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바뀌게 되었다. 존은 설교를 메소디즘의 초석으로 삼은 장본인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부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 강단을 만드는 게 더 어울립니다!”라며 조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존은 이러한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평신도 설교자에 대한 직책과 의무를 상세하게 작성했다. 설교자들은 돌아다니며 가능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회심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배모임을 형성하는 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 그들은 생계에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존은 그의 설교자들에게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과는 반대로 가르쳤다.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그리고 힘차게 나무를

휩기고, 물을 길거나 신발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자들은 존 웨슬리처럼 식사를 간단하게 했다. 하지만 존은 자신이 최근에 바꾼 것처럼 채식을 하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모든 일정이 끝났을 때, 주조공장에서 열린 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다음 회담이 다음 해 같은 날짜에 계획되었다. 모임이 끝나자, 존은 미래의 가능성들로 힘을 얻었고, 즉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1745년9월 18일, 존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도시인 뉴캐슬에 도착했다. 그 날은 또한, 어여쁜 왕자 찰리 (Bonnie Prince Charlie) 또는 젊은 왕위 요구자 (the Young Pretender)로 알려진 찰스 스튜어트(Charles Stuart)와 그가 스코틀랜드 고지(Scottish Highlands)에서 모집한 전투부대가 에딘버러(Edinburgh)를 장악하고 점령한 날이었다. 왕자의 군사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스튜어트(Stuarts)왕가의 카톨릭교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돌려놓는 것이었다. 에딘버러에서 찰스왕자는 남쪽으로 밀고 나가 잉글랜드 경계를 넘어갈 의도였다. 그는 런던으로 진입해 조지 왕 2세를 타도하고, 자신이 왕권을 잡아 잉글랜드를 다시 카톨릭 국가로 만들 계획이었다.

에딘버러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뉴캐슬에 닿았을 때, 마을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에딘버러에서 뉴캐슬 북부까지는 겨우 90마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즉시 도시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의용군을 조직하고, 도시 외벽에 대포들을 배치했으며 몇몇 진입로에는 벽돌을 쌓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도시의 남자들을 불러 조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고, 존 웨슬리도 기꺼이 동참했다.

눈앞에 닥친 침략을 두려워한 많은 사람들은 뉴캐슬 밖과 남부로 도망을 갔다. 그러나 존은 메소디스트 고아원에서 지냈다. 이곳은 도시의 성벽 바로 밖에 있는 조그만 언덕위에 있었는데, 그가 그 곳에서 지낸 이유는 전쟁을 하는 동안 잉글랜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 메소디스트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의도였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며, 그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도 공격은 오지 않았고, 뉴캐슬의 주민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대신 찰스 스튜어트와 그의 스코틀랜드 부대는 뉴캐슬을 우회하고 잉글랜드 남부로 갔다.

13장. 동역자

1745년 11월 말이 되었고, 존은 뉴캐슬의 메소디스트 사역이 평신도에게 맡겨도 될 만큼 안정됨을 느꼈다. 특히 그레이스 머레이(Grace Murray)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젊은 과부로, 존은 그녀의 헌신과 능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레이스에게 고아원을 맡겼다.

뉴캐슬의 일들을 마치고, 존은 말에 올라 런던으로 가기위해 남쪽으로 갔다. 더딘 여정은 매 시간마다 스코틀랜드 스파이를 확인하는 파수꾼으로 인해 중단 되어야 했다. 하지만 파수꾼들의 염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스코틀랜드군대는 잉글랜드 중부지역에 급습했지만 잉글랜드 군이 그들을 쳐서 돌려보냈다. 컴벌랜드(Cumberland)공작은 9천명의 군인을 데리고 찰스 스튜어트와 그의 군대를 쫓아 스코틀랜드까지 갔다. 1746년 4월 16일 컬로든 무어(Culloden Moor)에서 마지막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스코틀랜드 군이 크게 패배했다. 잉글랜드 군은 300명이 죽은 반면, 스코틀랜드 군은 전장에서 2000명을 잃었다. 찰스 스튜어트는 살아서 전쟁터를 빠져나갔고, 스코틀랜드 제도(the Scottish Isles)로 들어가 숨었다가 프랑스로 도망갔다. 스코틀랜드의 패배 이후, 불안한 평화가 영국제도에 찾아왔다.

존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이 전쟁의 끝이 메소디스트의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을 종결시켜주길 희망했다.

그 사이, 존의 내면에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홍차에 관한 것이었다. 18세기잉글랜드에서 홍차는 값비싼 음료였고, 홍차 잎 1파운드 가격이 60실링이었다. (당시 잉글랜드군 급여가10실링 6펜스였다.) 존은 홍차가 비싸서 계속 마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홍차로 인해 수전증이 있었다. 존은 차를 마시지 않음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메소디스트들이 홍차를 사는데 더 이상 돈을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사역에도 피해를 준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러한 것들을 중단하고 대신에 쇠약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그들이 홍차대신에 영국산 허브를 이용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빈곤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존은 계속되는 자극에도 불구하고, 홍차를 마시고 싶은 욕구를 이겨냈다. 그리고 건

강한 삶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책을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쉽고 자연적인 방법(*An Easy and Natural Method of Curing Most Diseases*)」 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책에서 그는 243가지의 질병에 대해 상세히 썼고, 700가지가 넘는 치료방법을 열거했다. 그는 건강한 삶과 단순한 치료를 강조했다. 차가운 목욕, 뜨거운 찜질, 허브 차 그리고 개인위생과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였다.

존은 또한 주조공장에 “사람들의 진료소”를 열었다. 이곳은 병원으로, 가난한 이들이 진료와 약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병원은 시작부터 유명해서 매일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존은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와 여자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는 자신이 쓴 건강에 대한 새로운 책들을 가지고 다시 여행을 떠났다. 그는 모든 메소디스트들이 그 책을 읽고, 건강에 대한 조언을 따르길 원했다. 비, 우박, 진눈깨비 또는 폭설도 존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말을 타기에 너무 혹독한 날씨에는 말을 외양간에 두고 길을 걸어서 갔다.

존은 또한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었다. 브리스톨 가까이 있는 킹즈우드에서 지낼 때, 그는 광부의 아들들을 위한 학교의 운영을 맡는 것에 동의했다. 그의 결정은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의 아들을 위한 학교를 여는데 박차를 가하게 했다. 존의 희망은 이 학교에서 메소디스트의 새로운 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두 학교, 광부의 아들과 주간학교와 설교자들의 남자 아이를 위한 기숙사 학교가 킹즈우드에서 나란히 운영되고 있었다.

1746년 동안, 존은 가난한 메소디스트들에게 빌려줄 돈을 모금하고 있었다. 그 대출금은 한 사람당 1파운드씩 빌려주고, 3개월 이후에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병원처럼 대출프로그램은 아주 인기가 있었고, 운영 18개월 만에 225명의 사람들이 단기대출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존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뻗어 도울 것을 장려했다. 개정된 메소디스트 지도자를 위한 규칙에 그는 이렇게 썼다.

만약 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없다면, 가난한 자를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면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고, 불편한 얼굴을 하거나 거친 단어를 제어하라. 비록 그

들이 빈손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라. 모든 가난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그렇게 대하라.

1747년 여름, 존은 새로운 부르심을 느꼈다. 그곳은 아일랜드(Ireland). 존은 더블린(Dublin)으로 갔다. 그곳은 메소디스트 사역이 이미 진행 중인 곳으로, 몇 년 전 조지 화이트필드가 미대륙 식민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더블린에 들르면서 사역이 시작되었다. 더블린 메소디스트단체는 이미 28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고, 존은 그들의 배우려는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존이 아일랜드에서 런던으로 돌아갈 때, 그는 웨스틀리 홀이 여동생 마르타와 아이들을 두고 캐리비안(Caribbean)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존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마르타와 조카들을 데려와 같이 사는 것 외에는 없었다. 당시 존과 찰스는 함께 누이인, 마르타와 수잔나 그리고 에밀리아를 부양했다. 웨슬리가의 여인들은 메소디스트 운동을 받아들였고, 두 형제에게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1747년 후반에 찰스는 더 나은 조력자를 발견하였다. 그건 바로 예비신부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샬리 킨(Sally Gwynne)으로 23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40세 찰스는 그녀와 함께라면 훌륭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샬리에게 사랑의 시를 보냈다.

하나보다 더 나은 둘

고민을 얘기하거나 싸울 때에도

혼자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혼자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이 대목은 웨슬리 형제에게 있어 낯선 질문이었다. 존과 찰스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결혼한 사람보다 미혼의 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두 형제는 어느 한 쪽의 허락 없이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찰스는 한계점에 다다랐고, 샬리를 존에게 소개해야 할 시

기가 되어버렸다.

존은 찰스의 신붓감이 마음에 차지 않았고, 좀 더 적합한 신붓감 명단을 즉시 만들어 찰스가 그녀와 계속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릴 것을 대비했다. 명단작성을 마친 존은 찰스에게 그 명단을 주고, 북부지역으로 떠났다. 그때만 해도 존 웨슬리는 찰스 때문에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바뀌게 될 줄은 몰랐다.

1748년6월, 존은 뉴캐슬에서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곳의 고아원을 돌보던 그레이스 머레이는 존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간호해주었고, 존은 그런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32세의 그녀는 존보다 13살 어린 나이에 예쁘고 독실한 과부로 뉴캐슬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메소디스트 중 한 명 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존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존은 그레이스에게 다음 해에 있는 두 번째 아일랜드 일정에 동행함으로 그곳의 다른 메소디스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라고 청했다. 1749년 4월이 시작되었을 때, 존과 그레이스는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첫 방문지는 웨일스(Wales)였고, 당시 찰스 웨슬리가 그곳에 있었다. 찰스는 여전히 샬리와 결혼하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고, 존 또한 같은 생각을 했다. 1749년 4월 8일 존 웨슬리는 찰스와 샬리의 결혼식에 주례를 섰다.

이 후 존과 그레이스는 아일랜드로 향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동생을 보며, 존은 그레이스와의 결혼을 추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존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와 아일랜드에서 셀 수 없는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존은 진심을 전할 용기가 부족했다. 또한 그녀는 존이 “만일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일거야.”라는 말을 해도, 자신을 그저 사역에 필요한 다재다능한 동역자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또 다른 메소디스트 설교자, 존 베넷(John Bennet)이 그레이스를 적합한 신붓감으로 생각했고, 구애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존 웨슬리와 존 베넷 모두 자신이 그레이스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존은 찰스에게 이러한 관계를 숨겼다. 사실 그들은 연애를 희망할 때면 서로 상황을 공유하기로 약속되어있었다. 찰스가 존과 그레이스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화가 났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둘의 결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레이스는 하녀출신으로, 찰스는 만약 존이 이러한 낮은 계층의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메소디스트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존 웨슬리같이 중요한 사람이 그레이스 머레이와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그레이스의 마음의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존 웨슬리와 존 베넷은 사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엄청난 반대시위에 맞서며 함께 복음을 전했다. 1749년 10월 그들이 볼톤(Bolton)에 있을 당시,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일기에 썼다.

저녁 다섯 시 쯤이 되어 볼톤에 도착했다. 우리는 곧바로 대로로 들어서기 전에, 로치데일(Rochdale)의 사자들이 이곳 볼톤에서는 순한 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분노와 맹렬한 격분은 이제껏 인간의 형상을 한 어떠한 존재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우리가 도착한 집으로 쫓아왔고, 우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길을 장악하고 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로 가득 매웠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아우성치던 인파는 조금 조용해졌고, 페로넷(Perronet)은 나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 밖으로 나서자,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싸고는 그를 진흙탕에 던져 몸을 굴러 버렸다. 그가 그들로 부터 재빨리 도망쳐 다시 집으로 왔을 때, 그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있었다. 그러다 돌 하나가 처음으로 창문에 날아왔을 때, 힘을 합쳐 공격하라는 의미의 종이 울렸고, 나는 돌들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원거리를 공격할 방법은 없었고, 어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달려와 폭도들이 집으로 몰려들어 올 것 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존 베넷이 잡혔다고 했고, 실제로 존 베넷은 그들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려운 하나님”에 관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데이빗 테일러 (David Taylor)는 더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일부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때가 됐다고 생각한 나는 뻑뻑이 몰려있는 무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자 하나를 요청했다.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멈춰있었다. 나의 심장은 사랑으로, 나의 눈은 눈물로, 나의 입은 항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놀라워했고, 부끄러워했으며, 차가운 마음은 녹아내렸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집어삼키듯 받아들였다. 놀라운 변화로다! 오 하나님은 계략가 아히도벨(Ahithophel)은 어리석은 자로 바꾸시고, 이 술에 취한 자들과 욕하는 자들,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에 불

과한 이들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들려주기 위하여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결국에는 그레이스 머레이는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 존 베넷을 선택했고, 이 일은 존 웨슬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존은 미래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그러던 1751년 초에 존은 몰리 버자일(Molly Vazeille)을 만났다. 그녀는 41살의 과부로 4명의 자녀가 있었다. 존은 그녀가 아픈 사람을 헌신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고는 경건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몰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녁에 주조공장 예배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얼어버린 땅에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다친 것이었다. 존은 걸을 수 없게 되자, 몰리의 집으로 옮겨져 요양을 받았다. 1751년 2월 19일 존과 몰리는 결혼을 했다. 존은 몰리와의 결혼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생 동역자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길 소망했다. 그러나 실재는 생각과 달랐다.

14장. 어긋난 관계

메소디스트 설교자는 기혼의 설교자가 미혼의 설교자보다 설교를 한 번 덜하거나, 선교여행을 하루 덜 가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존은 이것을 지켰다.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이 된 몰리와 여전히 발목부상으로 걸음을 절고 있는 존은 메소디스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일부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이 회원들에게 메소디스트는 곧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와 그들만의 교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존은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존이 잠시 떠났을 때, 그는 몰리에게 많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다정했고, 설교자의 아내로서 행동해 줄 것을 상기시켰다. 처음에는 제자도에 집중한 남편의 편지를 받고 어깨가 우쭐하기도 했으나, 곧 지쳐버리고 말았다. 존 웨슬리의 아내로 사는 것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일을 담당해야 했다.

그들의 가정을 단단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1752년 몰리는 존이 가는 여행에 동행한다. 이들은 4개월 동안 잉글랜드북부와 중부에서 사이를 다닐 예정이었다. 몰리는 동행하며 6주를 지냈지만, 그녀의 아들이 아프면서 브리스톨로 가야했다.

그 동안 존과 찰스 웨슬리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찰스는 항상 존보다 좀 더 보수

적이었고, 존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분개했다. 몰래 찰스는 그의 형을 “존 교황”으로 불렀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두 형제 사이에 문제를 일으켰고, 존은 찰스에게 이것에 대한 단호한 편지를 썼다.

나와 함께 진실로 행동하지 않으려거든, 하는 척도 하지 말거라. 이 일에 대해 부인한다면,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나와 동역한다는 것은, 내가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네가 사역하는 곳에 찾아 갈 때면, 나의 조언을 받으라는 뜻이다. 너의 목적지를 정하기전에 내 충고를 들어라. 그 말을 받아드리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말을 듣길 바란다. 현재 너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네가 언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

1753년 2월 19일 존과 몰리의 2주년 결혼기념일이 지났다. 그러나 그 해 11월, 존은 3번째 결혼기념일은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추운 야외에서 설교를 하다가 폐에 감염을 입고 매우 수척해진 상태였다. 퀘이커(Quaker)교의 의사는 시골의 공기를 마시고, 쉬면서 나귀 젖을 마시고, 매일 승마를 하라고 처방해주었다. 존은 그의 조언을 따라했지만,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쓸 비문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존 웨슬리 이곳에 잠들다.

불속에서 건져진 그을린 나무,

51세에 폐결핵으로 죽다.

빛을 갠고 나면

10파운드도 남지 않으니

주여, 이 무익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존의 질병은 메소디스트운동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누가 존의 자리를 승계 하거나, 또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찰스 웨슬리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지만, 찰스는 이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형처럼 육체적으로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식도 못 미치고, 설교에 재능이 없다고 했다. 계

다가 찰스는 다른 문제로 마음이 짓눌린 상태였다. 그의 18개월 된 외동아들 재키(Jackie)가 홍역으로 사망하고, 동시에 그의 아내 또한 같은 질병으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 존은 감염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고, 지도자 승계의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회복하기 시작했고, 1754년 3월이 되자 설교를 다시 시작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 그리고 그는 좀 더 멀리 떨어진 잉글랜드 남부로 가서 선교사역을 하며 일 년을 보내고 왔다. 찰스의 아내인 샬리 웨슬리도 홍역으로 인한 병환에서 완전히 나왔다.

1755년 4월 존과 몰리는 잉글랜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광범위한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길가에서 지내는 삶이 익숙하지 않은 몰리는 존의 여행에 동행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존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왜 이 여행이 그와 몰리의 관계를 한계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썼다.

마지막 여정에서, 나는 인내심으로 참고 또 참았다...나는 무엇이든 자족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은 여정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두에게 있어야 할 정신이었다. 만약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녁식사, 딱딱한 침대, 형편없는 방, 비가 쏟아지거나 더러운 길을 그들이 마주하게 될 때면, 그들은 불쾌해하며 성을 냈고, 이러한 행동은 나에게 짐이 되었다... 모든 것에 안달하고, 수근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나의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과 같았다.

메소디스트 지도자 연차회담이 그 해 리즈(Leeds)에서 열렸고, 회담에서는 메소디스트가 영국 국교회 안에 일부로 남아야 하는 지 아니면,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존은 이 단체가 왜 영국 국교회에 남아야 하는지를 62가지의 이유를 들어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교파의 창시자가 아닌 영국 국교회의 개혁자라고 말하면서도, 메소디스트가 영국 국교회와 구분된 무리가 되어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메소디스트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한다.(1) 옥외설교 (2) 공동기도문 없이 기도하는 것 (3) 자신의 모임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 (4) 평신도설교

의 허용

하지만 존은 만약 영국 국교회의 당국이 그들의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한하려 한다면, 메소디스트들은 영국 국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파를 창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 찰스는 존이 영국 국교회 탈퇴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았다. 그 결과, 찰스는 항의하며 회의에서 나와 버렸다. “나는 이 회담과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존은 영국 국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발표하기 전에 메소디스트 단체를 독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단호했다. 그도 찰스에게 작별을 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를 염려하는 문제가 지금 신속하게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르거나 침묵한다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회의가 끝나고 전도여행을 계속하면서 영국 교회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가 메소디스트 일반회원들에게 항상 적용된 건 아니었음을 발견했다. 그가 뉴캐슬에 다음 방문지로 갔을 때, 단체의 많은 사람들은 존의 말을 잘못 받아드려 이미 교회를 관둔 상태였다. 존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존은 진실로 자신이 새로운 교단의 창시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교회의 개혁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

1755년 말에 존은 아일랜드로 다시 한 번 전도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신생의 메소디스트 모임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메소디스트의 방법으로 카톨릭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반면에, 찰스 웨슬리는 잉글랜드에서 일 년 동안 돌아다니며, 그의 형이 영국 국교회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을 거부하여 행한 것들을 되돌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가 방문한 모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리되어 그들만의 교단을 열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음을 느꼈다. 절망하여, 찰스는 순회설교자로서의 삶을 마치고, 브리스톨에 터를 잡아 그곳의 메소디스트단체를 감독하며 찬송을 지었다.

찰스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아내와 보낼 수 있었지만, 존은 그렇지 않았다. 폴리와 존의 결혼생활은 더욱 불편하게 되었고, 결국 폴리는

존과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첫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녀는 별거 생활로 돌아섰다. 존은 계속해서 복음전도를 하였고, 조직을 만들었다.

1763년 존은 「커다란 순간(*The Large Minutes*)」이라는 글을 썼다. 이 책은 메소디스트의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쓴 일종의 성명서로, 앞으로 수 년 동안 있을 결정 사항에 기준의 역할을 가진 문서였다. 이 문서가 완성되었을 때, 각 메소디스트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한 부식 전달되었고, 그들이 모임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로서 사용되었다.

1764년 61세의 존은 여러 부수의 문서를 안장주머니에 실어 넣어 영국전역의 메소디스트 방문하기 시작했고, 일기에 다음과 같은 흔한 일상을 기록했다.

나는 말을 타고 아침 4시가 조금 지나 출발했다. 그리고 오후 2시쯤에 슈르스버리(*Shrewsbury*)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라니들로스(*Llanidloes*) 장터에서 설교를 했다. 3시에 우리는 말을 타고 산속을 달려 파운튼헤드(*Fountainhead*)에 도착했다... 7시쯤에 다시 여행길에 올랐고, 가다가 습지를 만나 길을 잃었다.

어느 정직한 남자가 즉시 말에 오르더니, 우리보다 앞서 언덕을 오르고 내리며 전속력으로 달려갔고, 길을 찾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그 길이 로즈페어(*Rose-fair*)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는 말에 올라 그 길로 나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 길은 에버리스트위스(*Aberystwyth*)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했고, 저편에 있는 다리로 향했다. 그 다리 근처에는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이 옆 마을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주었다... 이후 밤 9시가 넘었을 때, 약 한 시간 동안 산속에서 암초지대, 습지, 벼랑까지 가며 방향을 했다. 결국 우리는 다리 근처에 있는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시간에 그곳은 술에 취해 으르렁대는 광부들로 가득했다. 그곳은 풀이나 건초, 곡식 같은 것은 없는 광산지역 이었다. 우리는 로즈페어로 가는 길에 함께 할 광부 한 명을 고용했다. 그는 끄찍할 정도로 취해있었는데, 길을 안내 하다가 강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몸 전체가 빠졌고, 그 덕에 다시 방향 감각을 찾게 되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우리는 숙소로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우리의 말이 곳곳에 칼로 베이고, 나의 암말은 돼지처럼 피를 흘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쇠스랑에 찍혀 생긴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힘든 여행은 존이 다닌 많은 전도여행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사실 노령이 되었을 때에도 존은 일 년에 3000마일을 달리고, 800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수 백 명의 설교자들을 관리하고 용기를 주었다. 여건과 상관없이, 그는 일반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수십 년 전에 그가 모라비안교도의 신앙을 접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치는, 그의 노력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게 된 많은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통해 지지받고 있다.

많은 해가 지나도, 매해 존은 이전처럼 바빴다. 존은 결국 미대륙 식민지에 메소디스트 단체를 조직해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두 명회 순회전도자를 보냈다.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 존은 사실 해외로 사역을 넓히는 것을 피했다. 일부 메소디스트들은 카리브 제도(Caribbean)으로 이민을 갔고, 영국군인들이 캐나다와 아메리카대륙 북부 지역의 다른 식민지에 배치가 되면서 그들은 그곳에 메소디스트 모임들을 세웠다. 그러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모임을 만드는 것에 박차를 가했고, 1769년 8월 메소디스트 연차회담에서 리처드 보드맨(Richard Boardman)과 조셉 필무어(Joseph Pilmoor)가 뉴욕에 지을 메소디스트 예배당 건축비를 가지고 북아메리카로 파송되었다.

같은 시기에 존은 집 근처에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세운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회원 중 한 명인 한나 볼(Hannah Ball)은 하이 위컴(High Wycombe) 학교를 세웠고, 종교 교과목들과 함께 일반학교에서 가르치는 읽기, 쓰기, 산수를 가르쳤다. 존은 이 계획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말해주는 말씀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770년 후반기동안, 조지 화이트필드는 북아메리카로 7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다. 9월 29일 폴츠마우스(Portsmouth)에서 뉴햄프셔(New Hampshire)로, 뉴버리포트(Newburyport), 매사츄세츠(Massachusetts)로 가는 여정이었다. 그는 뉴햄프셔의 엑서터(Exeter)에서 야외설교를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했다. “나의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사역을 하면서 매우 지쳐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사역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저의 길을 마치지 못한다면, 이곳에

서 한 번 더 당신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진리를 봉인하여 집으로 돌아가 죽게 하소서.”

조지 화이트필드는 다음 날 아침에 생을 마쳤다. 65세의 나이였다. 존은 2주 뒤에 그 소식을 영국에서 듣게 되었고, 큰 슬픔에 빠졌다. 존은 옥스포드에서의 17살의 조지를 기억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따랐다. 그 때 부터 존과 조지의 삶은 서로 연을 맺었다. 그 둘은 곤란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다.

존은 런던에서 열린 조지를 위한 추모예배에서 세 번이나 설교를 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조지를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흥운동(Great Awakening)”을 시작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설교에서 존은 다음 말씀을 전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민수기 23:10) 존은 첫 기념예배에서의 감동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엄청난 수의 인파가 각 처에서 몰려왔다. 나는 처음에 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 앞에 서있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강하게 해주셨고, 심지어 문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흑독한 계절 속에 세상은 밤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은 받은 감동에서 빨리 떠나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타버나클(Tabernacle)에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기로 한 시각은 6시 30분이었으나, 3시에 이미 사람들로 거의 차있었기에 4시에 설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엄청난 소음들로 시끄러웠지만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멈췄다. 나의 목소리는 다시 힘을 얻었고, 잠시 우발적인 소음이 방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오 예상치 못한 강한 만지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부르시며, 생명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 모두는 들었을 것이다.

추모예배가 있었던 토터남 코트 로드(Tottenham Court Road)에 있는 예배당을 나설 때, 존은 조지가 즐겨했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일

을 다 할 때까지 말이야.” 명백하게 조지 화이트필드는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다.

15장. 지치지 않는 일꾼

대부분의 남자나 여자들이 여러 해를 살지 못하던 때에, 1770년 6월 17일 존 웨슬리는 67세의 나이를 넘겼다. 자신의 생일에 존은 다음의 글로 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정말 내가 68세의 나이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10살에서 13살 아니, 14살까지 나는 빵 외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것조차도 풍족하게 먹어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나의 어린 시절이 이제까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성장 했을 때, 체인 박사(Dr.Cheyne)가 쓴 책의 영향으로, 소식을 하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이었다. 고열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던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 나는 더 건강해졌다... 몇 년 뒤, 나는 폐결핵 3기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또한 없애주셨다. 그때 이후로 나는 고통이나 질병을 모르고 지냈고, 지금의 나는 40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다. 이 일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찰스 웨슬리 또한 살아있었고, 존의 세 명의 누이, 에밀리아, 마르타, 앤도 살아있었다. 그러나 일 년 뒤에 에밀리아는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존은 엠위스 목사관에서 삶을 함께한 가족들 중 한 명을 더 잃게 되었다.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은 결연히 자신이 이제껏 써 온 글들을 모음집으로 출판하기 위하여 자신의 글들을 수집하고 준비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사역 모음집(*the Collective Works*)」은 32권으로 구성되었다. 수 년 동안 그는 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으며, 대략 일 년에 1400파운드 이상을 벌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있어도, 그는 단순한 삶을 지켰다. 생활비 지출을 30파운드로 유지했고, 이것은 그가 대학에 다닐 당시 생활비와 같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돈은 메소디스

트 자선단체에 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자신의 “편함”을 위해 돈을 좀 더 쓰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때면,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돈은 저와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돈은 저를 애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것들을 제 손에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말이예요.”

존은 잉글랜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의 주시했다. 1770년 3월, 영국부대가 일으킨 화재로 5명의 식민지 주민이 사망했고, 이 사건은 보스턴 학살사건(the Boston Massacre)로 알려졌다. 당시 반역자 전체가 아메리카로 들이 닥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힘을 모으고 안정을 갖기 위해 메소디스트 단체로 들어갔다. 단체에 들어오는 사람수의 증가로, 존은 두 명의 전도사를 잉글랜드에서 아메리카로 파송했다. 그들은 26세의 프랜시스 애스버리(Francis Asbury)와 24세의 토마스 코크(Thomas Coke)였다. 이 두 남자는 아주 다른 성장배경을 가졌다. 토마스는 옥스포드의 지저스 칼리지(Jesus College)를 나왔고, 영국 국교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사람이었다. 반면 프랜시스는 메소디스트 반대운동이 가장 심하게 있었던 웬즈버리지역의 하층계급 출신이었다.

그들이 식민지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와 프랜시스는 뉴욕과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메소디스트 교구를 넘겨받았는데, 이는 리차드 보드맨과 조셉 필모어가 아메리카 대륙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다른 식민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사이, 잉글랜드에서도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 메소디스트 여성들은 모임 안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이것은 영국 국교회에서 가끔 있던 일과는 또 다른 일로서, 메소디스트 모임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역할이었다. 존은 여성들이 그들의 설교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반면, 자신의 어머니가 58년 전에 앵웨스에서 했던 사역들처럼 그들이 고소당하지 않도록 선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일들은 쉽지 않았다. 존은 메소디스트 “설교자” 사라 크로스비(Sarah Crosby)에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설교를 요청했을 때, 그녀가 해야 하는 방법들을 편지를 써서 설명했다.

당신이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에게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저를 곤란

하게 만드시는군요. 메소디스트들은 여성 설교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럴 성격이 안 되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당신에게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법도 어기지 않게 됩니다. 조용하고 꾸준하게 계속 전하십시오.

존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드는 군중의 수는 계속 늘어났고, 1773년 8월 존은 이제까지 중 가장 많은 숫자인 3만 2천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70세의 남자가 3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마도 처음 있는 일 일 것이다.” 존은 그날의 일을 일기에 적었다.

보스톤 학살 후에,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개척자들과 영국인들 사이의 긴장감은 안정되었다. 그러나 1773년, 영국의회가 동인도회사(the East India Company)에게 식민지에 홍차를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주면서 다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법령은 지역의 홍차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했고, 선착을 저지당한 동인도회사의 배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화물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보스톤에서 지역주민의 한 무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일으켰다. 1773년 12월 16일, 그 무리는 인도사람으로 변장하여, 동인도회사 세 척의 배에 올라가 홍차가 담긴 수 백 개의 화물상자를 항구에 던졌다. 이는 나중에 보스톤 차사건(the Boston Tea Party)으로 알려졌다.

처음으로 영국과 여왕의 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에 생긴 노골적인 갈등은 금방이라도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다. 이 위협에 대응하여 아메리카에 사는 많은 메소디스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북부로 이동하여 캐나다로 갔다.

1775년 4월 매사추세츠 주 콘코드와 렉싱턴 (Concord and Lexington)에서 영국과 식민지 간의 싸움이 결국 발생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존은 반란군의 원인에 의외의 공감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식민지를 위해 국무장관인 다트머스(Dartmouth)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저의 글이 마음에 드시든 그렇지 않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장관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시려거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장관님 자신의 눈으로 보십시오.

저도 저의 모든 선입견으로는 아메리카의 식민지 개척자들을 반대합니다. 저는

고교회파 신도로서, 그리고 고교회파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수동적 복종과 무저항의 고도의 개념으로 가르침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탄압당하는 그 사람들, 법적권리 외에는 요구하는 게 없는 그들에 대한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들을 허용하는 가장 겸허하고 해롭지 않은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을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제가 편지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400명의 일반인과 40명의 군인이 지난 소규모 접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식부대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을 상대로 싸운 첫 보고가 될 것입니다!

나의 주여, 당신도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 했던 것처럼 쉽게 정복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만약 그들이 죽으면, 그 칼을 손에 쥔 것입니다.

사실 일부 용맹한 사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천명의 사람들이 아메리카의 반역자들을 모조리 없앨 것입니다.” 아니요. 2만 명의 사람도 그 숫자의 세배가 되는 사람도 그들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군처럼 강한 사람들이며, 주군만큼 용감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자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연약한 영혼들에게 전쟁을 좋아하게 만들고, 복수에 목마르게 하며, 죽음을 경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것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을 불속에 뛰어들게 하거나, 대포의 입으로 달려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대를 잃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사람들 중에 전쟁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규율이 없다.” 이것은 완전한 실수입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의 군대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군대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기간에 전쟁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존은 친구들과의 많은 회의를 가졌다. 그러다 작가 사무엘존슨(Samuel Johnson)을

알게 되었고, 이는 식민지전쟁에 대한 존의 마음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는 북아메리카 영국정책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는 존슨의 「압제 없는 과세제도(Taxation No Tyranny)」 소책자 한 부를 가져다가, 자신이 지은 이름인 「아메리카 식민지에게 전하는 평온의 연설(A Calm Address to the America Colonies)」로 재출판을 하였다. 이 책은 노예를 감금한 아메리카 식민지주민들은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책의 출판은 대중들의 항의를 일으켰고, 그 이유는 책에서 말하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존이 아무런 허가 없이 이 책을 복사하고 출판한 이유였다. 비난에 대한 반응으로, 존은 그의 친구 사무엘 존슨이 원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보판을 내놓았고, 대중의 항의는 빠르게 잠식됐다.

존 웨슬리가 다트머스 경에게 전했던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자들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만약 그들이 죽으면, 그 칼을 손에 쥘 것입니다.” 그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1776년 6월, 식민지주민들은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들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그들이 끝까지 완강하고 예상치 못한 상대라는 것을 입증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의 전쟁이 격렬해지자, 존은 그곳에 있는 메소디스트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편에도 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말을 모두에게 전했지만, 그의 아메리카를 반대하는 소책자는 계속 인쇄되었고, 결국 식민지주민들에게도 배포되면서 그들이 중립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존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많은 사람들이 메소디스트 단체에 들어왔고, 1775년에 955명에서 1777년에는 4,379명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이유는 당시 메소디스트가 영국 국교회에 충성하지 않았고, 그 결과 거의 독립된 교회로서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북아메리카에 있는 메소디스트의 상황은 존 웨슬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당시 영국에서 좀 더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는 존의 시간을 많이 차지했던 일로, 런던에 새로운 메소디스트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다. 1776년이 되었을 때, 주조공장에 세운 예배당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전역에 있는 메소디스트 교구들에게 단체의 본부로 사용할 새로운 예배당을 위한

기금마련을 요청하였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777년 4월 21일, 휘몰아치는 빗속에서 존 웨슬리는 새 건물의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이곳을 웨슬리의 예배당(Wesley's Chapel)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 예배당은 로얄 로우(Royal Row) 도로에 있는 1에이커(약 4,050평방미터)의 땅위에 세워졌고, 그 앞에는 풍차들이 있었으며, 주조공장으로부터 약 5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존은 예배당이 1778년 11월 1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 때까지 공사를 감독했다. 그 건물은 매우 컸지만 화려하지 않은 예배당으로 2천명이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 옆에는 존이 생활할 집이 마련되어 있었다.

동시에 웨슬리의 예배당은 존을 점령한 또 다른 계획으로 분주했다. 그것은 메소디스트 잡지를 출판하는 것으로, 존은 이것을 「알미니안 매거진(*Arminian Magazine*)」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출판물은 메소디스트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칼빈주의적 생각을 반박하는 목적을 가졌다. 존은 이 잡지에 많은 글들을 썼으며, 처음으로 쓴 글 중 하나는 그의 어린 시절 앵무스의 사제관에서 나왔던 유명인 제프리 노인(*Old Jeffrey*)에 관한 글이었다.

2년이 지나고, 1780년 존은 「메소디스트를 위한 찬송가모음집 (*A Collection of Hymns for the Use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을 출판했다. 그 찬송가집은 525곡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7곡은 아이작 왓츠(*Isaac Watts*), 한 곡은 그의 형인 사무엘이, 한 곡은 그의 아버지가 지었고, 19곡은 독일찬송가를 존이 번역을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곡들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지은 것들이었다. 존과 찰스는 찬송가가 문맹의 사람들까지도 신앙을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곡들이 인쇄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다. 새 찬송가집의 대부분의 곡들은 이전에 출판된 곡들이었지만, 존은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찬송가모음집을 소개했다. “듣고 다니기에 너무 크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책의 무게에 알맞은 크기로 만들어 쉽게 헤지거나 닳지 않을 것입니다.”

일 년 뒤, 1781년 10월에 존은 브리스톨에서 설교를 하다가 아내의 사망소식을 듣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이 부부는 수 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존은 아내의 사망소식으로 큰 슬픔에 빠졌다.

존은 노인이 되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를 넘어서게 되면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79세의 생일에도 존은 여전히 강건했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80 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므로, 나의 시간들은 고되거나 외롭지 않다. 난 5살 때나 20살 때처럼 아프지도 않고, 신체적으로 병약한 곳도 없다. 난 이것을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1)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심에 적합하게 만드시고, (2) 지금도 일 년에 4~5천 마일을 돌아다니게 하시며, (3) 자고 싶을 때마다, 낮이나 밤에 폭 잘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4)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하셨고, (5)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특히 아침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폭풍속의 침착함, 나는 느끼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위에 행해진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기도들의 응답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메소디스트 설교자인 존 햄슨(John Hampson)은 노년의 존 웨슬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존을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강하고, 근육질의 사람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좁고 납작한 스톡(Stock:1730년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이용되었던 일반적으로 신사 가목에 감았던 폭넓은 띠 모양의 칼라 장식)을 하고, 높이 솟은 칼라의 코트를 입었다. 그의 무릎에는 버클장식이 없었으며, 그의 옷에 실크나 벨벳은 조금도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희었으며, 무언가 소박하면서도 사도 같은 인상을 주었다. 동시에 단정하고 청결한 분위기가 그의 전체에 풍겼다.”

그의 80번째 생일이 지나도 존은 쉴 틈 없는 설교일정을 멈추지 않았다. 존의 허락으로 그의 친구들이 마차를 사주었지만, 존은 마차를 타기 보다는, 마차를 끄는 말 한 필을 빼내어 말을 타고 다녔다. 말을 타고 50마일 이상을 달리는 것 보다 그를 기운 나게 하는 일은 없었다.

존 웨슬리가 여행했던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 역들은 그의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아메리카 식민지의

반역자들은 그들이 갈구하던 자유를 얻었고, 영국은 마지못해 그들의 독립을 인정했다. 영국이 훌륭한 대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믿었던 존에게 이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여전히 영국 국교회의 일부로 남아있는 아메리카의 메소디스트 단체에게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 전념하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존의 마음은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메리카에 있는 메소디스트가 여전히 영국 국교회의 법을 따라야 하는가? 조지 왕 3세는 현재 영국의 군주도 아니며, 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회의 수장도 아닌데, 여전히 그의 통치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존은 자신이 이러한 질문들을 붙들고 있지 않고, 머지않아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6장.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1780년은 메소디스트의 박해에 종말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어느 곳에 가던지 존경을 받았다. 그의 마지막아일랜드 여행에서, 더블린(Dublin)시와 콜크(Cork)시의 시장들은 존에게 명예시민권을 부여했고, 그는 가는 곳마다 최고의 환영을 받았다. 더블린에서부터 존은 9주 동안 60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100번의 설교를 하고, 그 중 6번은 야외에서 전했으며, 그 중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말한 곳에서 전했다. “엄청 넓지만, 우아하지는 않네요. 외양간은 말이죠.”

1784년, 존은 그가 죽은 후에도 메소디스트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했다. 그는 선언문(A Deed of Declaration)을 쓰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1784년 2월 28일에 발표되었다. 그 증서는 법적으로 “총회의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른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것의 승계와 독자성은 계속 이어진다.”고 선언했다. 이 문서는 해외에 있는 100명의 설교자들의 이름과 존이 죽은 뒤에 처분할 신탁재산에 대한 목록을 포함했다. 조심스럽게 존은 설교자들에게 이것의 책임을 위한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

4개월이 지난 후, 7월에 존은 로버트 레이크(Robert Raikes)씨의 주일학교를 방문했고, 큰 감동을 받았다. 존은 일기에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나는 주일학교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24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제들은 감독을 했다. 교구의 많은 아이들은 죄 짓는 일에 제재를 당하고, 적어도 그곳에서 좋은 예절들을 배우며,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일학교들이 부흥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하나님의 깊은 곳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이 있는 것 같다. 누가 아는가, 이 주일학교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보육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일학교에 대한 물음에 존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 아이들을 존경합니다. 왜냐면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쓰임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일학교의 사역은 떠오르는 다음 세대를 돌보는 일입니다.”

북아메리카 메소디스트 단체를 조직하는데 돕기 위해 파송되었던 토마스 코크가 영국으로 돌아왔다. 1784년 9월1일, 브리스톨로 온 그는, 독립한 연방공화국, 즉 미국의 메소디스트에 관한 문제와 함께 중대한 걸음을 했다. 다이턴 로(Dighton Street)에 있는 캐슬맨(Castleman)씨의 집에서 존은 토마스에게 안수를 하고 “미국에 있는 메소디스트 하나님의 교회”의 사제로 임명했다. 더 나아가 존은 토마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 프랜시스 애스버리에게 협력관리자로서 임명을 전하라고 했다. 대신에 ‘감독(bishop)’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토마스는 미국으로 돌아갈 때, 존 웨슬리가 미국 메소디스트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갔다. “우리의 미국인 형제들이 이제 국가와 영국의 계층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므로, 우리는 다시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초대교회를 따르기 위한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며,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유를 누리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계속해서 미국 메소디스트를 영국 국교회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는 공동기도문을 다시 써서 「북미에 있는 메소디스트를 위한 주일예배(*The Sunday Service of the Methodists in North America*)」라고 책의 이름을 지었다. 새롭게 편집된 이 책은 더 짧아졌고, 사제(priest)와 감독(bishop)대신에 관리자(Superintendent), 장로(elder)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 책은 또한 신앙에 관한 39개 조항에서 15개를 누락시키고, 그에 따라 교회력에 기념해야 하는 성일(holy days)의

수도 줄였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일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존 웨슬리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의 메소디스트들은 프랜시스 애스버리와 토마스 코크의 직분을 받아드려야 전에 임명에 대한 투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그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존에게 이러한 의견을 보낸 그들의 행동은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충성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종속관계가 아니라 직속관계로 남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해인, 1786년 크리스마스 회담에서 미국의 메소디스트 지도자들은 킹스우드에 존 웨슬리가 세웠던 기숙사 학교처럼,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의 남자 아이들과 고아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 학교의 이름은 콕스버리 컬리지(Cokesbury College)로 코크(Coke)와 애스버리(Asbury)의 이름을 합성하여 만들었다.

이든 해, 존은 메소디스트와 영국 국교회를 공식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우선 메소디스트 교회와 설교자들의 안전을 위해, 존은 예배당을 믿지 않는 자들의 집회장소로 허가를 받아놓았다. 이것은 메소디스트는 더 이상 영국 국교회에서 확대된 단체가 아니며, 성공회를 믿지 않는, 즉 따르지 않는 교단이라는 뜻이었다. 존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영국 교회가 메소디스트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프랜시스 애스버리와 토마스 코크의 안수식에 함께 있던 찰스 웨슬리는 형이 모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에 화가 났다. 그 결정은 “메소디즘의 두 거물”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찰스가 사망하기 전까지 둘의 사이는 회복되지 못했다. 1788년 3월 찰스 웨슬리는 사망했다. 존은 영국의 북쪽을 순회하고 있던 터라 찰스의 사망소식을 제때에 듣지 못해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새롭게 허가받은 메소디스트 시티 로드 예배당(웨슬리의 예배당)대신에, 찰스 웨슬리의 장례예배는 런던 성 메릴르번(St. Marylebone) 성공회 교회에서 거행됐다. 8명의 성공회사제들이 찰스의 관을 교회묘역으로 옮겼고, 찰스는 그 곳 축성된 땅에 묻혔다.

찰스 웨슬리는 6,500곡의 찬송가를 유산으로 남겼으며, 존 웨슬리는 그 중 많은 곡들을 동생 찰스를 위하여 발표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세 곡의 찬송가로는, ‘천사 찬송하기를 (Hark! The Herald Angels Sing)’, ‘비바람이 칠 때와 (Jesus, Lover of My Soul)’, ‘만 입이 내게 있으면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이 있다.

존은 찰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임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

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영국 북부지역의 복음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찰스의 장례가 3주 지나서야 존은 볼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드린 예배에서 어린이 성가대가 준비한 곡은 찰스의 찬송가였고, 존은 일어서서 1절 가사를 읽었다.

*오라, 오 그대여, 알려지지 않은 나그네여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당신, 하지만 볼 수 없네
나와 함께한 이들은 이전에 사라지고,
난 여기에 홀로 당신과 남았네*

동생인 찰스의 글은 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고, 그는 더 이상 가사를 읽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그는 찬송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숙여 찰스를 위한 눈물을 닦았다.

1790년 1월 1일, 존은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퇴모해버린 노인이 되었다. 나의 눈은 침침하고, 나의 오른손은 심하게 떨린다. 매일 아침 나의 입은 뜨겁고 건조하며, 거의 매일 열을 달고 산다. 나의 움직임은 약하고 느려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므로, 나는 태만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글을 쓸 수 있다.”

존은 계속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스코틀랜드로 전도여행을 갔다가 1790년 6월 17일 87세의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 존 웨슬리는 자신의 힘이 “아마 이 세상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이 없다. 단지 자연이 소진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생명의 샘이 지쳐서 멈출 때 까지 나의 힘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존은 다시 방문한 엠펙스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의 생기 있고, 재능 있던 가족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살아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존과 여동생 마르타였다. 이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지역 메소디스트들이 존을 마을에서 마을로 따라다녔고, 그들이 걸을 때에는 노래를 불렀다. 존은 마을 광장에서 설교를 했고,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돌아다니던 모든 곳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어린 아이들아, 서로 사랑하라.¹⁸⁾”

18) 요한복음 13:34

1790년 후반 존은 브리스톨에서 열린 메소디스트 연차총회에 나갔다. 모임에서는 메소디스트 회원에 대한 가장 최근의 통계를 발표해 공식기록으로 남겼다. 영국에는 71,463명, 미국에는 43,260의 회원이 있었고, 스코틀랜드, 카리브 제도,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회원은 5,350명이었다. 총회가 끝났을 때, 46년 동안 숙고의 결정을 해온 존 웨슬리는, 회의록에 서명을 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늘어나는 메소디스트에 대한 그의 비전은 변함없었다.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 존은 웨일스, 미들랜드, 링컨셔, 스코틀랜드 그리고 화이트 제도에 여행을 다니며 설교를 했다. 1790년 10월 6일 오후, 서섹스 주 윈첼시(Winchelsea, Sussex)에 있는 묘역에서 존 웨슬리는 물푸레나무 아래서 열린 야외 예배의 설교를 했다.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일터에 있던 사람들도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한 설교의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에 있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¹⁹⁾”였다.

1791년, 존은 활동구역을 런던으로 국한시켰고, 오한이 들지 않도록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했다. 노년의 나이에도, 존은 회원들의 연합을 갈망하며, 여전히 메소디스트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그가 2월 1일자로 미국에 보낸 편지에서 존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세상의 모든 메소디스트는 하나라고 선포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녀야 할 완전한 결단이며, 비록 산이 오르고, 바다가 들러싸여 우리를 막는다 해도, 그 모든 방해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의 전도여행은 끝났지만, 존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관심을 가졌다. 새해에 그는 아프리카 노예인 구스타바스 바싸(Gustavas Vassa)의 자선전을 읽었다. 존은 그 자선전의 출판 비용을 지원해주었고, 마침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큰 기쁨을 얻었다.

책을 읽은 존은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메소디스트로 개종한 자로서, 의회의 의원이었다. 그는 세계 어느 곳에 서든 영국이 노예제도에 참여 하는 것을 반대했다.

1791년2월 24일

친애하는 의원님,

성령님께서 의원님을 아타나시오스(Athanasius)처럼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종교적

19) 마태복음 4:17

문제, 영국과의 문제, 그리고 인간 본성의 문제까지 있었던 극악무도함을 반대하는 그 영광의 기업에 의원님은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의원님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의원님은 사람들과 마귀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미 지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원님의 편에서 선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힘을 합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²⁰⁾” 예수의 이름으로 정진하십시오. 살아 움직이는 악행들, 심지어 미국의 노예제도까지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이 쓴 짧은 책 하나를 읽으면서, 저는 그들이 처한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사람은 백인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잔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우리의 식민지의법 때문에 말입니다. 이 법은 백인들에게 흑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행들을 봐주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의원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익한 중, 존 웨슬리

1791년 매우 혹독했던 겨울날씨로 인해 존은 기침과 감기로 자주 아팠다. 질병으로 인해 한바탕 아프고 나면서 그는 더 쇠약해진 것 같았고, 존은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다. 3월 1일, 그는 펜과 잉크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글을 쓸 만큼의 기력은 없었다. 메소디스트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벅시 릿치(Betsy Ritchie)는 그에게 무엇을 쓰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혈육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여동생, 마르타와 찰스의 부인, 샬리를 옆에 두고, 존은 온 힘을 다하여 외쳤다. “그 어느 것 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샬리가 그의 입술에 물을 축여 주었을 때, 존은 식사 후에 항상 낭송하던 감사의 말을 반복했다. “오, 주님 저의 모든 것과 당신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우리의 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진리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 갈라디아서 6:9

존은 밤을 지새웠고, 1791년 3월 2일 수요일 아침에 메소디스트 주요 회원들이 그의 곁에 모인 가운데, 존 웨슬리는 팔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²¹⁾” 말씀을 마치고, 87세의 나이로 존 웨슬리는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의 죽음은 메소디스트다운 마지막이었다. 어느 것에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고통을 인정하기보다 구세주의 영원한 임재에 들어가기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존의 장례식은 3월 9일 수요일에 계획되었고, 예배 하루 전날 존의 시신은 시티로드 예배당에 영예롭게 안치되었다. 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한 번 더 보기 위하여 그의 관을 지났다. 실은 장례식을 주관하였던 사람들은 예배당이 조문객들로 넘쳐날 것을 예상해, 장례예배를 아침 5시에 하기로 비밀스럽게 정했었다.

존 리처드슨은 존을 거의 30년 동안 도왔던 성직자로서, 장례예배의 사회를 보았다. 그가 공동기도문을 읽으러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의 영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그는 북받치는 감정과 함께, 형제를 아버지로 바꾸어 말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존 웨슬리, 사실 그는 리처드슨이 말한 것처럼, 마침내 많은 자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 일생동안 말을 타고 2500마일을 달렸고, 5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다. 그는 단순한 형태의 그리스도교를 당시 교회의 밖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춘 신앙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존은 그의 성격대로 자신의 토지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꼼꼼한 지시사항을 남겼다. 그는 대부분의 돈을 메소디스트 종합기금에 남겼고, 40파운드를 여동생 마르타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관을 옮긴 6명의 가난한 각 사람에게 20실링씩 지급하였다. 존 웨슬리는 조문객이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례를 주관하던 자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시티 로드 예배당을까만 천으로 씌웠다. 장례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천은 6명의 가난한 여성들에게 드레스감으로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존이 승인을 한 사항이었다.

존의 죽음 이후의 첫 번째 메소디스트 총회에서, 존이 남긴 서신 중 하나인, 지

21) 시편 24:7

속적인 메소디스트 사역에 대한 지시사항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1785년에 작성된 서한에서 존은, 권위 있는 직책을 맡게 될 사람들은 다른 설교자들에게 새로운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올바르게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불편 마음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언문을 이용하여 당신의 형제들에게 우월감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제가 보여드린 방식을 정확하게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상황이 허락되는 한 순회전도사역을 멈추지 마십시오. 특히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했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설교자들을 이끄는 사람, 킹스우드 학교에 갈 아이들을 선택하는 사람, 연간기부금, 설교자 기금, 또는 다른 공적기금을 처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을 전심을 다해 성실히 하십시오. 모든 일을 편견이나 편애가 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고문헌

- Ethridge, Willie (Snow). *Strange Fire: The True Story of John Wesley's Love Affair in Georgia*. New York : Vanguard Press, 1971.
- Hrmon, Rebecca Lamar. *Susanna, Mother of the Wesley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8
- Hattersley,Roy. *The Life of John Wesley: A Brand from the Burning*. New York: Doubleday,2003
- Mcreynolds, Kath. *Susanna Wesley*. Bloomington, Minn.:Bethany House Publishers,1998
- Miller, Basil. *John Wesley: The World His Parish*. Grand Rapids: Zondervan,1943
- Tomkins, Stephen. *John Wesley: A biograph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2003
- Wellman, Sam. *John Wesley: Founder of the Methodist Church*. Uhrichsville, Ohio: Barbour Publishing, 1997.
- Wesley, John. Edited by Elisabeth Jay. *The Journal of John Wesley: A Sel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